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 지원사업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매일경제신문 심포지엄

# 초불확실성의 시대 :

## 한국의 당면 도전과제와 정책 대응방안

2020. 11. 19. (목) 오후 2:00~6:00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S Room

주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 지원사업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매일경제신문

후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 지원사업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매일경제신문 심포지엄

# 초불확실성의 시대 :

## 한국의 당면 도전과제와 정책 대응방안

2020. 11. 19. (목) 오후 2:00~6:00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S Room

Zoom 온라인 실시간 중계 | <https://snu-ac-kr.zoom.us/j/85959743398>

전체사회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14:00~14:20

개회사 **김정식**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환영사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소장)

축사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제 1세션** COVID-19와 네트워크의 사회학 14:20~15:10

발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토론 **강정환** (연세대 사회학과), **신은경** (고려대 사회학과)

**제 2세션** 불확실성하의 글로벌 경제정책 대응추이와 전망 15:10~16:00

발표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박응용** (서울대 경제학부)

휴식 16:00~16:10

**제 3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질서 변화양상과 시사점 16:10~17:00

발표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토론 **주용식** (중앙대 국제대학원),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패널토론** 불확실성의 시대: 정치, 외교, 사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도전과제와 정책 대응방안 17:00~18:00

사회자 **김광환** (연세대 경제학부)

패널 **김병관** (아주대 사회학과),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 지원사업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매일경제신문 심포지엄

## 초불확실성의 시대 : 한국의 당면 도전과제와 정책 대응방안

### 초청의 말씀

코로나 19사태로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는 물론 한국도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정치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 경기침체가 금융부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계층 간의 갈등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에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내 각 분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학제간 연구와 융합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과학의 주요이슈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은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초불확실성의 시대 : 한국의 당면 도전과제와 정책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디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김정식**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박철희**  
매일경제신문 CEO **장대환**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인사말



한국사회과학협의회(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는 1976년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15개 사회과학분야 학회들의 협의회로 설립되었으며,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제 간 연구와 교육을 선도해 왔습니다.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SSREC), 세계사회과학협의회(ISSC), 국제사회과학기구연맹(IFSSO) 등에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사회과학계를 대표하여 활동해 왔으며, 또한 한국 사회의 시대적인 현안들에 대해 융합학문의 시각에서 토론하는 정책포럼과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실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한편으로는 서구 사회과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준거적 이론과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경험적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사회과학은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세계까지 연구의 대상을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사회과학의 연구 기반구축을 위해 한국사회과학연구(Social Science Korea; SSK)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SSK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사회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과학분야는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과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같은 사회과학 분야 협의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인류사회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나노·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처리 등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성장이동의 사다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사회질서와 변동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의 책임은 실로 막중해졌습니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세계화와 같은 국제적 문제와 더불어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소방안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정세 변화와 북한 핵개발로 야기된 전쟁과 평화 및 통일의 문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초래될 인구절벽, 세계적으로 높은 자살률, 성장동력이 약화된 저성장의 경제, 사회 양극화 심화, 복지 수요의 급증, 정치적 대립과 대의제 민주정치의 결함, 사회 갈등과 불신의 심화 등 산적한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앞으로도 사회과학 분야의 학제 간 연구와 한국화 담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과학의 진흥과 한국사회의 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김정식

## 협의회 연혁

본 협의회는 사회과학의 제 학문분야간 상호협동을 기하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교육에 관한 연구를 기획, 조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1989년 11월 3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현재 본 협의회에는 모두 15개의 주요학회가 참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협의회는 한국의 사회과학 공동체를 가장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민간 학술단체이다. 본 협의회는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AASSREC)와 국제사회과학기구연합회(IFSSO)의 회원으로 각각 회장국과 부회장국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사회과학분야에 있어 국제학술교류 활동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그리고 총무로 구성되는 회장단, 본 협의회회 회계감사를 맡는 감사와 협의회 역대 회장단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각종 연구활동은 연구위원회가, 출판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다. 회원은 본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각 학회로부터 선출, 파견되는 학회대표 회원과 한국사회과학계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자격 회원들로 구성된다.

## 협의회 정기 학술저널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KCI indexed):

The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KSSJ) aims to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Korean social sciences in terms of theory as well as methodology. It also aims to play a role of informing scholars and policymakers abroad of research findings in Korean social sciences. In order to do so, the KSSJ welcomes those articles that either link different areas of social sciences together or explore Korean socio-cultural phenomen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More generally, KSSJ seeks articles from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on a broad range of topics in social sciences, as well as proposals for featured topics. KSSJ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 Editorial Information

Title	Name	Affiliation
Publisher	Jung Sik Kim	Yonsei University , Economics
Editor-in Chief	JaeBi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Managing Editor	Seong Eun Kim	Sejong University, Economics Department
Editorial Assistant	Hyun Ji C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조직 및 구성원

### 1) 회장단

	성명	소속	비고
회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전)한국경제학회 회장
부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현)한국교육학회 회장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현)한국사회학회 회장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현)한국정치학회 회장
	장은진	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현)한국심리학회 회장
감사	배금찬	국립외교원 정치학	(8월부터 임기시작)
	한광석	부산대 경제학	

### 2) 2020년 KOSSREC 임원명부 - 이사회 (성명 가나다 순)

성명	소속	성명	소속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

### 3) 집행위원회

분과	성명	소속	비고	분과	성명	소속	비고	
연구	홍순만	서울대 정치외교학	위원장	편집	최성주	경희대 행정학		
	김석호	고려대 행정학			하병천	서강대 경영학		
	김옥태	연세대 행정학			각 학회 편집위원장			
	박정수	고려대 언론학			송영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학	위원장	
	배영	성균관대 경제학			김세건	강원대 인류학		
	서은국	고려대 경영학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행정학		
편집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위원장	대외협력	박은실	추계예술대 예술경영		
	전현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간사	박경미	전북대 정치외교학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권현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법학		사무국	김광환	연세대 경제학	국장	
	조명환	서울시립대 경제학		신민섭		간사		

### 4) 운영협의위원회

학회	성명	소속	학회	성명	소속
경제사학회	이명희	이화여대 경제학과	한국사회복지학회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국제개발협력학회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사회학회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대한지리학회	이용우	前 국토연구원	한국심리학회	조현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한국경영학회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한국언론학회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한국경제학회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한국여성학회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한국교육학회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한국정치학회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한국문화인류학회	임경택	전남대 고고문화인류학과			

## 국제학연구소 소장 인사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IIA)는 1989년 출범한 지역종합연구센터를 모태로 만들어졌습니다. 1992년 지역종합연구소로 발전되었고, 2003년 국제지역원이 국제대학원으로 전환된 다음 해인 2004년 국제대학원 산하 국제학연구소로 발족하였습니다. 신생연구소가 아니라 16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소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구소의 자체 연구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개별 연구센터의 활동에 의존해 왔습니다.

2019년에 본 연구소 연구진은 새롭게 재출범을 다짐하였습니다. SK(株)의 후원을 받아 연구소의 재정적 기반을 다지고, 반년에 걸쳐 조직 재정비, 연구진 보강, 규정 정비, 공간 재구축 등으로 튼튼한 발판을 다졌습니다. 2020년을 맞아 국제학연구소는 재도약을 위한 비전을 내세우고 국제학과 지역학의 싱크탱크이자 아이디어 탱크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은 안보, 경제는 물론 사회 및 문화의 모든 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과의 협력과 개방적 국제질서의 활용은 국가 성장과 발전의 기초를 이루어왔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세계 주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은 한국의 앞날을 가름할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국제학연구소는 국제학 및 지역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체계화시키는 동시에, 국제 현안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심화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식 공유를 통한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제학연구소의 보다 나은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총심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장

**박철희**

## 설립 목적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IIA)는 2004년 국제대학원 산하 대표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학 관련 전문 연구소로서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관련 연구수행 및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정기학술지, 연구총서 출판, 동향보고서 및 working paper 등의 출판물을 발행하며, 국제학술회의, 워크숍 개최, 자료실을 통해 국제 및 지역정보의 수집·정리·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SK(주)의 후원을 받아 연구소를 재정비하여 연구소 산하 10개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 이슈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심화하고자 한다.

국제학·지역학 관련 국내외 연구자들의 학술적 연계 및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며, 향후 국제·지역 현안에 대한 정기 Issue Brief, Global Strategy Report, 국영문 단행본 등 발간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국제학연구소만의 차별화된 세미나 및 국내외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차세대 양성사업과 IIA Bookclub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 연구소 연혁

년도	주요 연혁
2004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설립, 산하 7개 센터로 출범 (2월 24일)
	·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소로 독립
	· 국제지역연구 및 JIAS 등재학술지 선정
2008	· 국제개발협력센터, 동아시아 연구센터 신설
2013	· 한국학센터 소천한국학센터로 명명
2019	· 국제안보센터,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신설
	· 국제학연구소 재정비
2020	· 국제학연구소 새단장식 (3월 2일)
	· 2020 비전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움
	· 글로벌 전략 세미나, 글로벌 엑셀런스 세미나 개시

## 조직 및 구성원

### 1) 국제학연구소 소장

직책	성명	소속/직위
소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2) 국제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직책	성명	소속/직위	직책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위원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위원	김병연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위원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위원	김월희	서울대 인문대학 교수	위원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위원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위원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위원	최인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위원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3) 국제학연구소 인사위원회

직책	성명	소속/직위	직책	성명	소속/직위
위원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위원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위원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위원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위원	김종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위원	이석재	서울대 인문대학 교수
위원	송지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4) 국제학연구소 산하기관

센터명	센터장	소속/직위	센터명	센터장	소속/직위
EU연구센터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협력연구센터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개발연구센터	정 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동아시아연구센터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안보센터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주연구센터	김종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연구센터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통상전략센터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학연구센터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5)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성명	전공	전공분야
윤태희	국제학 박사	중국의 사회 거버넌스, 국가-사회 관계와 시민권, 사영분야 당조적 건설

### 6)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연구보조원	김수영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신예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문유정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장 흥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변정아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연구소 주요활동

프로그램 명	상세 설명
글로벌 전략 세미나 (G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 · 지역학 관련 집중토론 세미나</li> <li>· 국제전략 이슈 중심 최고 전문가 초빙 자유토론</li> </ul>
글로벌 엑셀런스 세미나 (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 지역학 관련 차세대 유망학자 초청 세미나</li> <li>· 차세대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지원</li> </ul>
국내학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지역학 관련 국내학술회의 시리즈</li> <li>·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적 교류 및 학제적 발전 기여</li> </ul>
국제학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지역학 관련 국제학술회의 시리즈</li> <li>· 세계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학·지역학의 세계화 선도</li> </ul>
초청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저명 인사 초청 강연 시리즈</li> <li>· 다채로운 저명인사 초청강연 통한 국제학·지역학의 저변 확대 추구</li> </ul>

## 연구소 출판물

### 1) 정기 학술저널

명칭	설명
국제·지역연구 (RIAS)	연 4회 발간되는 국제·지역연구 국문 KCI 등재 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JIAS)	연 2회 발간되는 국제·지역연구 영문 KCI 등재 학술지

### 2) 출판물

명칭	설명
IIA Issue Bri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국제·지역문제 현안에 대한 IIA 분석리포트</li> <li>· 국제·지역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심도있는 분석</li> </ul>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JI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글로벌 전략세미나 시리즈 리포트</li> <li>· 국제 전략에 대한 논점정리 및 제언</li> </ul>
국영문 단행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연구소 집중연구 성과에 관한 기획 연구총서</li> <li>· 국제학연구소 산하 센터의 중점지원 결과물과 연구총서 출판</li> </ul>
Newsle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반기 연구소 활동 보고</li> </ul>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 지원사업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매일경제신문 심포지엄

## 초불확실성의 시대 :

한국의 당면 도전과제와 정책 대응방안

# 목 차

---

### 제 1세션 COVID-19와 네트워크의 사회학 01

---

발 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토 론 강정한 (연세대 사회학과),  
신은경 (고려대 사회학과)

---

### 제 2세션 불확실성하의 글로벌 경제정책 대응추이와 전망 23

---

발 표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 론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박응용 (서울대 경제학부)

---

### 제 3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질서 변화양상과 시사점 45

---

발 표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토 론 주용식 (중앙대 국제대학원),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 지원사업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매일경제신문 심포지엄

**초불확실성의 시대 :**  
한국의 당면 도전과제와 정책 대응방안

제 1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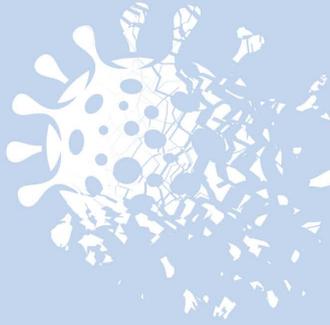
# COVID-19와 네트워크의 사회학

발 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토 론 강정한 (연세대 사회학과),

신은경 (고려대 사회학과)





## 코로나19, 전파의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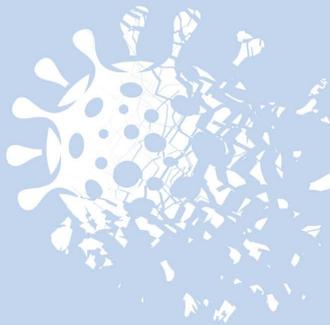
**장 덕 진** (서울대 사회학과)  
**조 원 광**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유 명 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 기 훈** (㈜사이람· 서울대 사회학과)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responds to  
COVID-19

This material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it is solely for the 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왜 전파 네트워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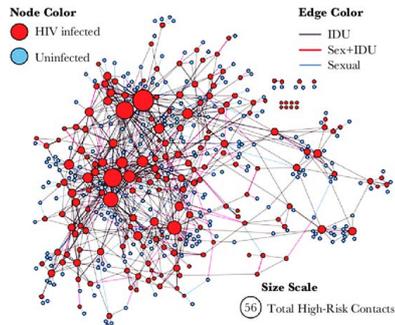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responds to  
COVID-19

This material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it is solely for the 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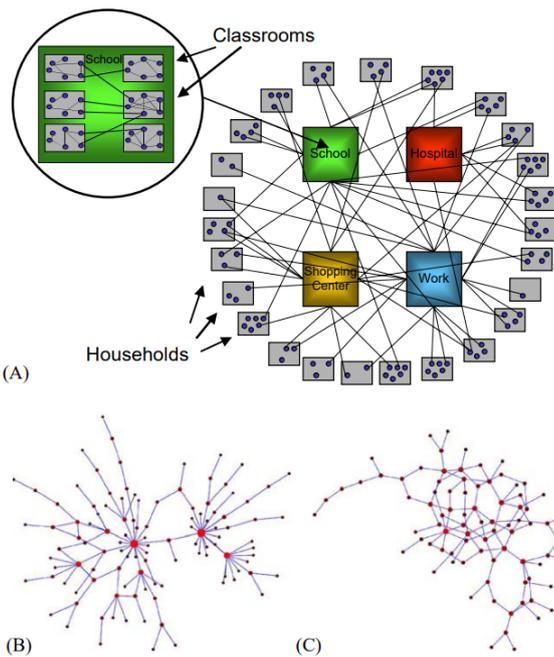
# 1. 감염 = 바이러스 +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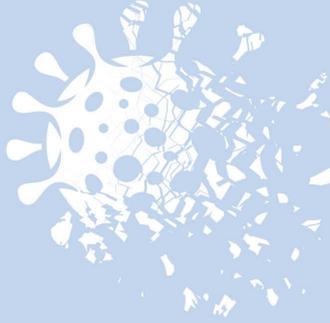
Source) Ellsworth Campbell et al. 2017. "Detailed Transmission Network Analysis of a Large Opiate-Driven Outbreak of HIV Infec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 모든 감염은 바이러스와 네트워크의 함수
- 백신이나 치료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또 하나의 변수인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정책을 병행해야
- 수십년에 걸친 HIV 대응은 이 점을 잘 입증하고 있음

# 2. 같은 바이러스라도 전파 네트워크 동학에 따라 outbreak와 epidemic 양상이 달라지고, 방역의 전략이 달라진다



Source) Lauren Ancel Meyers et al. 2005. "Network theory and SARS: predicting outbreak diversity."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32: 71-81.



## 선행연구들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responds to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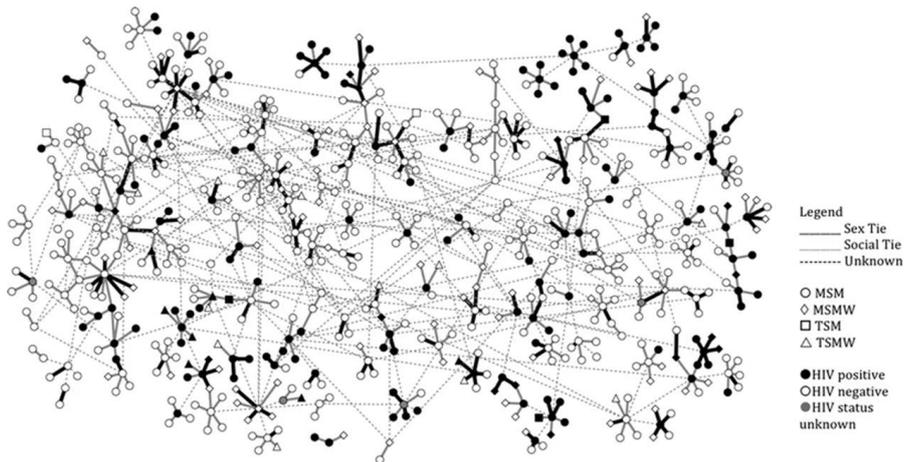
This material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it is solely for the 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사례 1: HIV와 성관계 네트워크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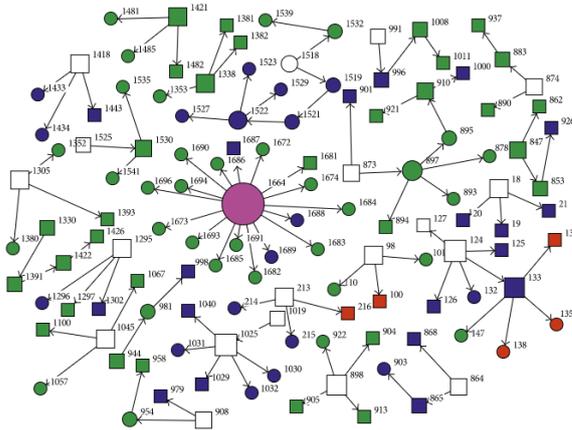
SNU  
responds to  
COVID-19



All transgender participants were male to female.  
MSM: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W: Men who have sex with men and women.  
TSM: Transgender individuals who have sex with men; TSMW: Transgender individuals who have sex with men and wo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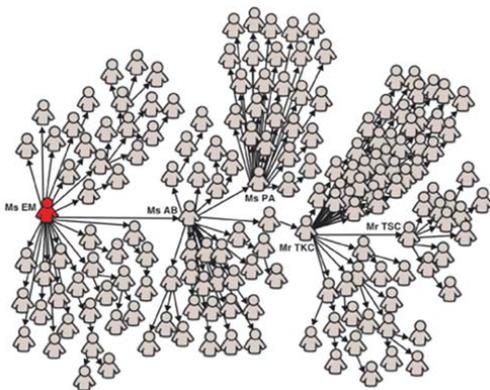
Source) Nirav Shah et al. 2013. "Structural Bridging Network Position is Associated with HIV Status in a Younger Black Men Who Have Sex with Men Epidemic." *AIDS and Behavior* 18: 335-45.

## 사례 2: MERS와 슈퍼전파자



Source) Oyelola A. Adegboye and Faiz Elfaki. 2018. "Network Analysis of MERS Coronavirus within Households, Communities, and Hospitals to Identify Most Centralized and the Super-Spreading in the Arabian Peninsula, 2012 to 2016." *Canadian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and Medical Microbiology*

## 사례 3: SARS와 슈퍼전파자



Source) Jonathan Shaw. "The SARS Scare: A Cautionary Tale of Emerging Disease Caught in the Act." *Harvard Magazine* March-April 2007.

## 사례 4: 비만과 소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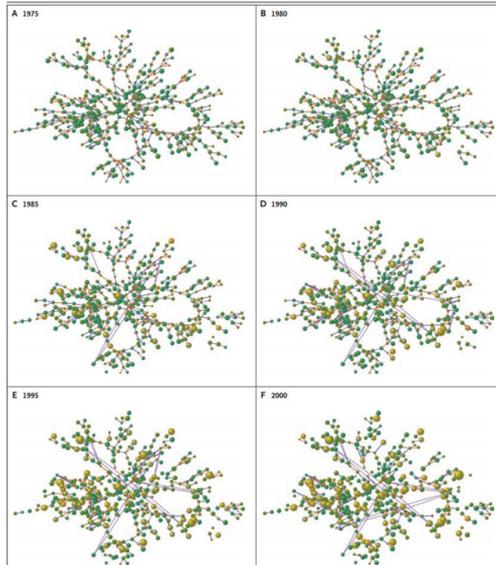


Figure 2. Part of the Social Network from the Framingham Heart Study with information about Body-Mass Index According to Year. Each circle (node) represents one person in the data set. Circles with red borders denote women, and circles with blue borders denote men. The size of each circle is proportional to the person's body-mass index. The interior color of the circles indicates the person's obesity status: yellow denotes an obese person (body-mass index, >30) and green denotes a nonobese person. The colors of the ties between the circles indic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purple denotes a friendship or a marital tie and orange denotes a familial tie. The disappearance of a circle from one year to another indicates the person's death, and the disappearance of a tie between the circles indicat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ersons no longer exists. The largest connected subcomponent of the whole network and the change in obesity over the 32-year study period are shown in an animation that is available with the full text of this article at www.njgm.org.

Source) Nicholas A. Christakis and James H. Fowler. 2007. "The Spread of Obesity in a Large Social Network over 32 Year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7: 370-9.

## 사례 4: 비만과 소셜 네트워크

The New York Times

### Find Yourself Packing It On? Blame Friends

By Gina Kolata

July 26, 2007



Obesity can spread from person to person, much like a virus, researchers are reporting today. When one person gains weight, close friends tend to gain weight, too.

Their study, published i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involved a detailed analysis of a large social network of 12,067 people who had been closely followed for 32 years, from 1971 to 2003.

The investigators knew who was friends with whom as well as who

The New York Times Magazine

### Are Your Friends Making You F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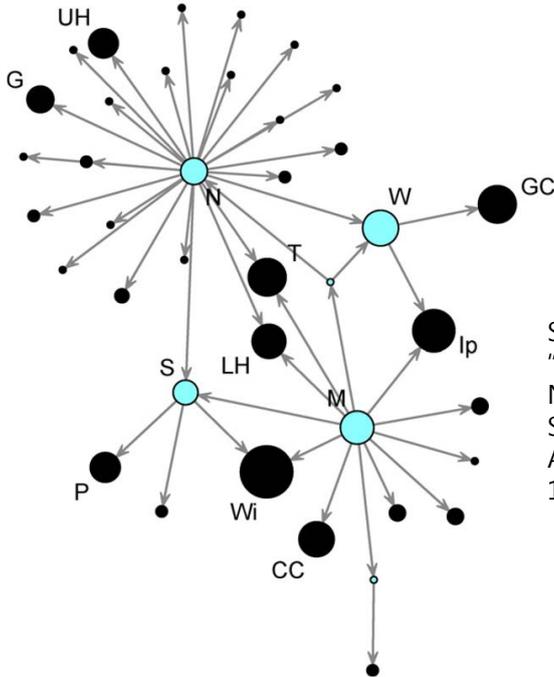
By Clive Thompson

Sept. 10,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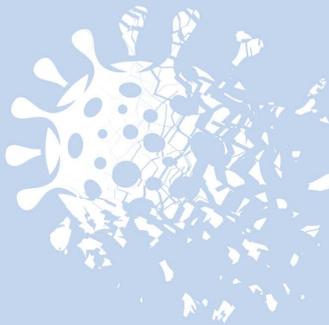


EILEEN BELLOLI KEEPS very good track of her friends. Belloli, who is 74, was born in Framingham, Mass., which is where she met her future husband, Joseph, when they were both toddlers. ("I tripped her and made her cry," recalls Joseph, a laconic and beanpole-tall 76-year-old.) The Bellolis never left Framingham, a comfortable, middle-class town 25 miles west of Boston — he became a carpenter and, later, a state industrial-safety official; and after raising four children, she taught biology at a middle school. Many of her friends from grade school never left Framingham, either, so after 60 years, she still sees a half dozen of them every six weeks.

## 사례 5: 말독감(Equine Influenza)과 목장간 네트워크



Source) Simon M. Firestone et al. 2011. "The Importance of Location in Contact Networks: Describing Early Epidemic Spread Using Spatial Social Network Analysis."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102: 185-95



## 코로나19 전파 네트워크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responds to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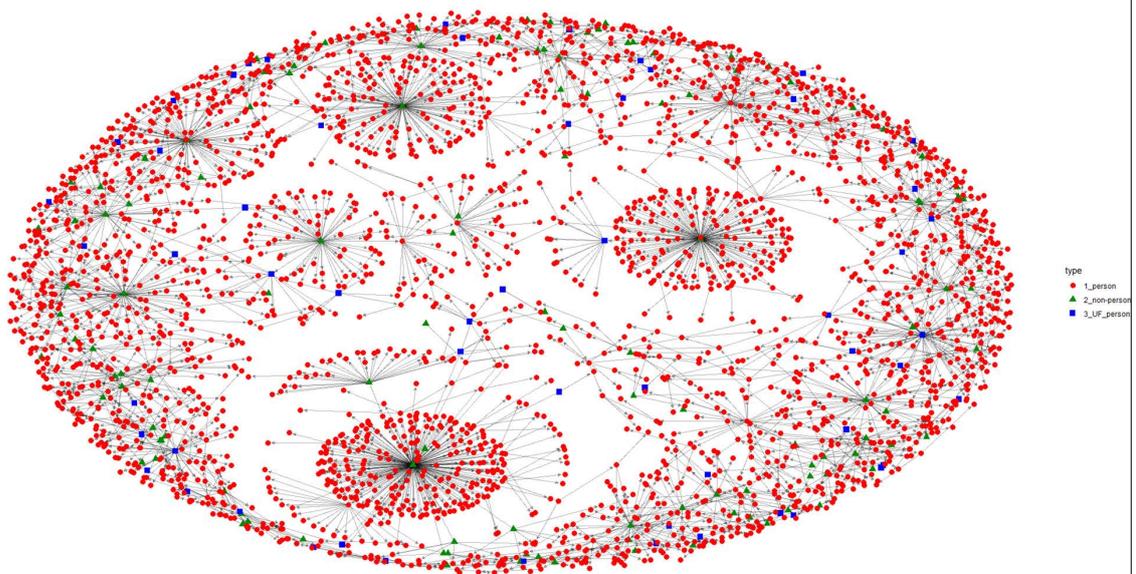
This material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it is solely for the 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코로나19 전파 네트워크 데이터



- 서울/경기/인천
- 2020년 6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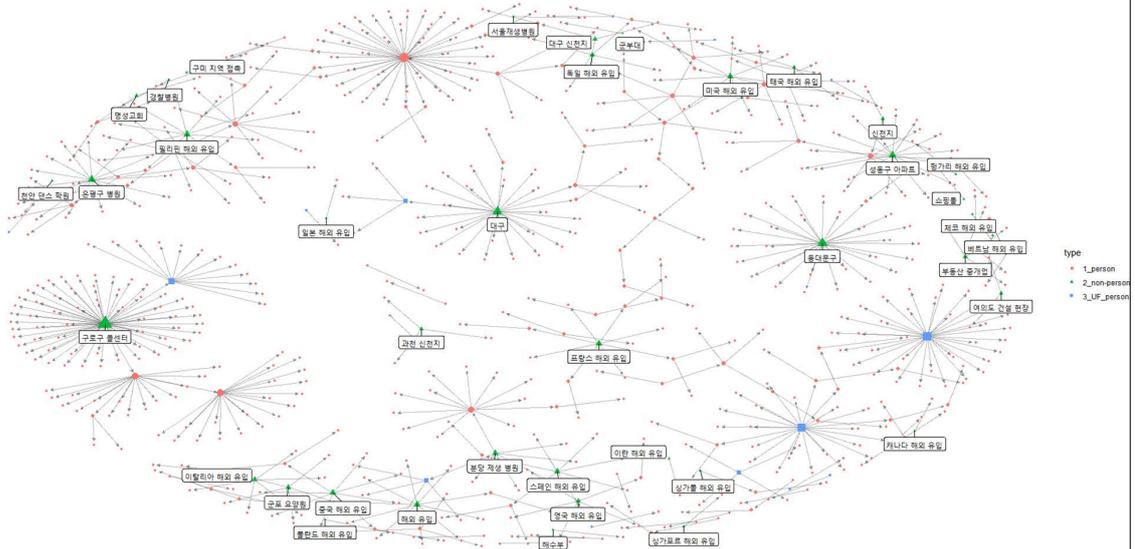
## 전체 코로나19 전파 네트워크



#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전, 1월 20일~3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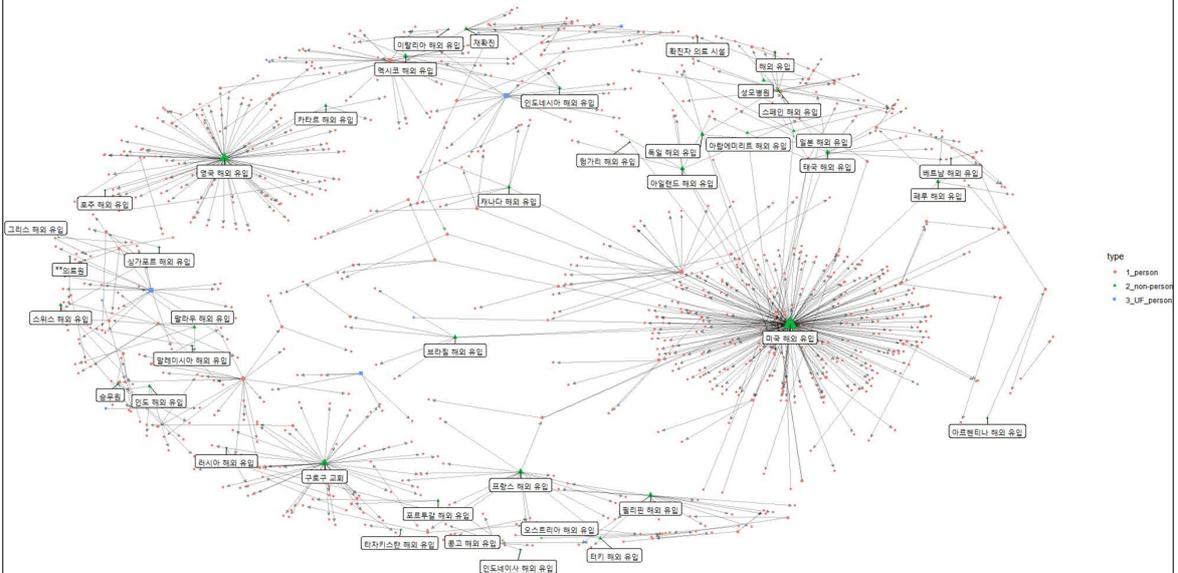
사회적 거리 두기 전, 1월 20일 - 3월 21일



# 사회적 거리 두기 시기, 3월 22일~5월 5일



사회적 거리 두기 시기, 3월 22일 - 5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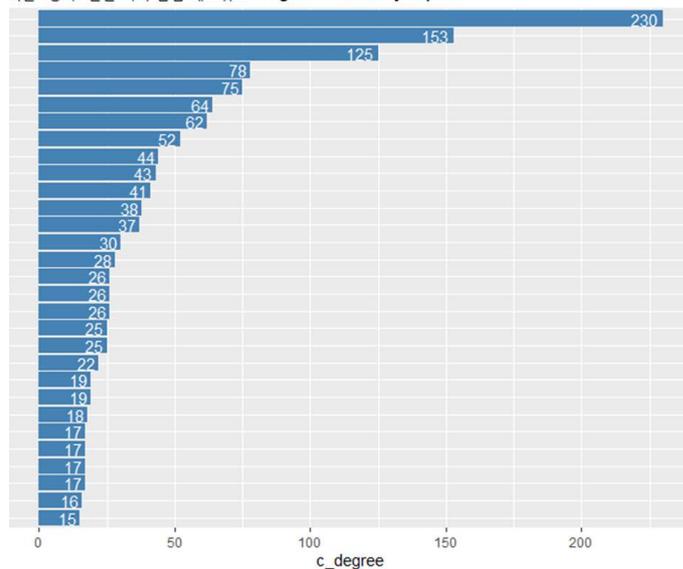




## 전파 수(degree centrality) 상위 30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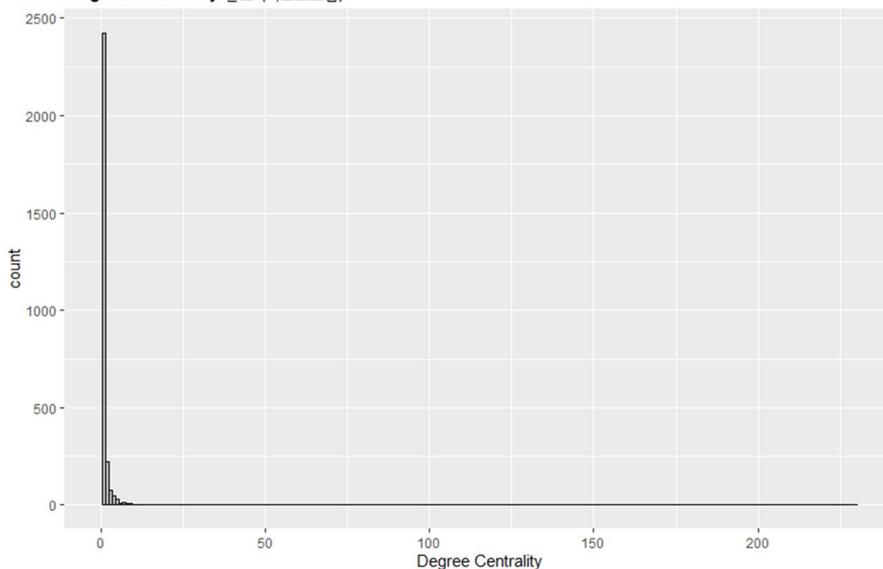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감염 네트워크 Degree centrality to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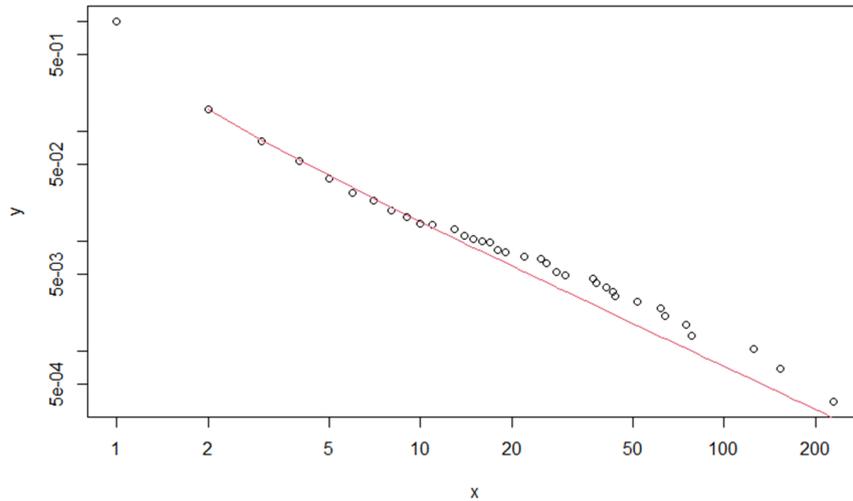
## 전체 전파 수(degree centrality) 분포



Degree Centrality 분포 (히스토그램)



## 코로나19 전파 네트워크는 Power law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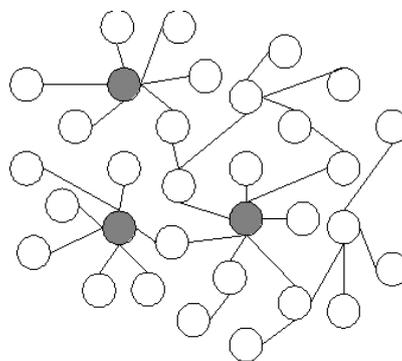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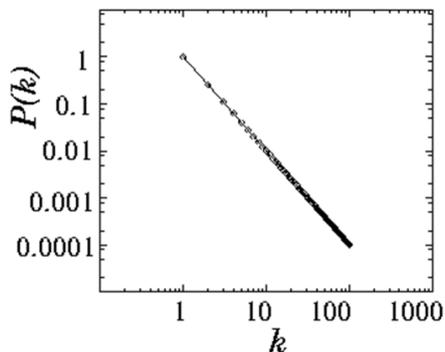


## Power law 분포/Scale-free Network의 특징



This material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it is solely for the 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Power-law Distribution(멱함수분포)과 Scale-free Network(척도 없는 네트워크)



- Small World
- Robustness to failure
- Clustering coefficient distribution

## 작은 세상(Small World)과 6단계의 분리(Six Degrees of Separation)

### Small world phenomenon: Milgram's experiment



Outcome:  
20% of initiated chains reached target  
average chain length = 6.5

"Six degrees of separation"

# 더 작은 세상(Even Smaller World)과 4단계의 분리(Four Degrees of Separation)



연세대 김용학 교수 연구  
2004년 1월 9일 중앙일보 보도

## 어성계 '공천운동' 나서

후진 10명 선정  
어성계는 10명 후보를 선정하고, 이 중 3.6명만 거치면 한국인은 '아는 사이'가 된다. 이는 100명 중 3.6%에 불과하다. 어성계는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천이란 어성계 소속 인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3.6명만 거치면 한국인은 '아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다. 어성계는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 국회가 국익을 외면했다

농촌의원들 몰로 막아 FTA 비준 또 무산

해당국영 국회 방문 통과 당부도 허사  
최외장 "2월 9일 경호원 발동해서 처치"



국회 상임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30분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농촌의원들 몰로 막아 FTA 비준 또 무산'을 의결했다. 최외장 의원은 "2월 9일 경호원 발동해서 처치"를 언급하며, 해당국영 국회 방문 통과 당부도 허사라고 밝혔다.

"의원 8명  
이르면 오늘  
사건 영장"

국회 상임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30분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농촌의원들 몰로 막아 FTA 비준 또 무산'을 의결했다. 최외장 의원은 "2월 9일 경호원 발동해서 처치"를 언급하며, 해당국영 국회 방문 통과 당부도 허사라고 밝혔다.

## LG카드 현금서비스 다시 중단

LG카드 현금서비스 중단  
LG카드 현금서비스가 다시 중단됐다. 이는 LG카드의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이 있다. LG카드 측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 선원문 문병축하장, 대선직전 盧후보에

"3천만원 사실상 직접 전달"  
선원문 문병축하장, 대선직전 盧후보에 "3천만원 사실상 직접 전달"을 언급하며, 해당국영 국회 방문 통과 당부도 허사라고 밝혔다.

선원문 문병축하장, 대선직전 盧후보에 "3천만원 사실상 직접 전달"을 언급하며, 해당국영 국회 방문 통과 당부도 허사라고 밝혔다.

# Robustness to Fail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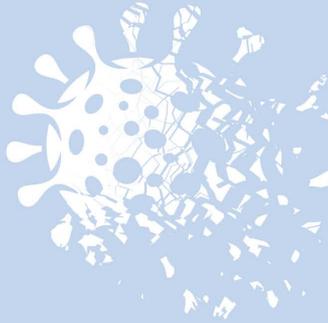


## - 무작위 공격(random attack)에는 강하다

- 무작위로 노드(nodes)들을 제거해도 네트워크는 붕괴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는 이유?

## - 조준공격(targeted attack)에는 취약하다

- 연결선이 가장 많은 노드(highest degree nodes) 상위 1%를 제거하면 전체 네트워크 50% 붕괴
- 상위 5%를 제거하면 전체 네트워크 거의 붕괴
- 코로나19 전략적 방역의 가능성?



# 코로나19 전파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수 있을까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responds to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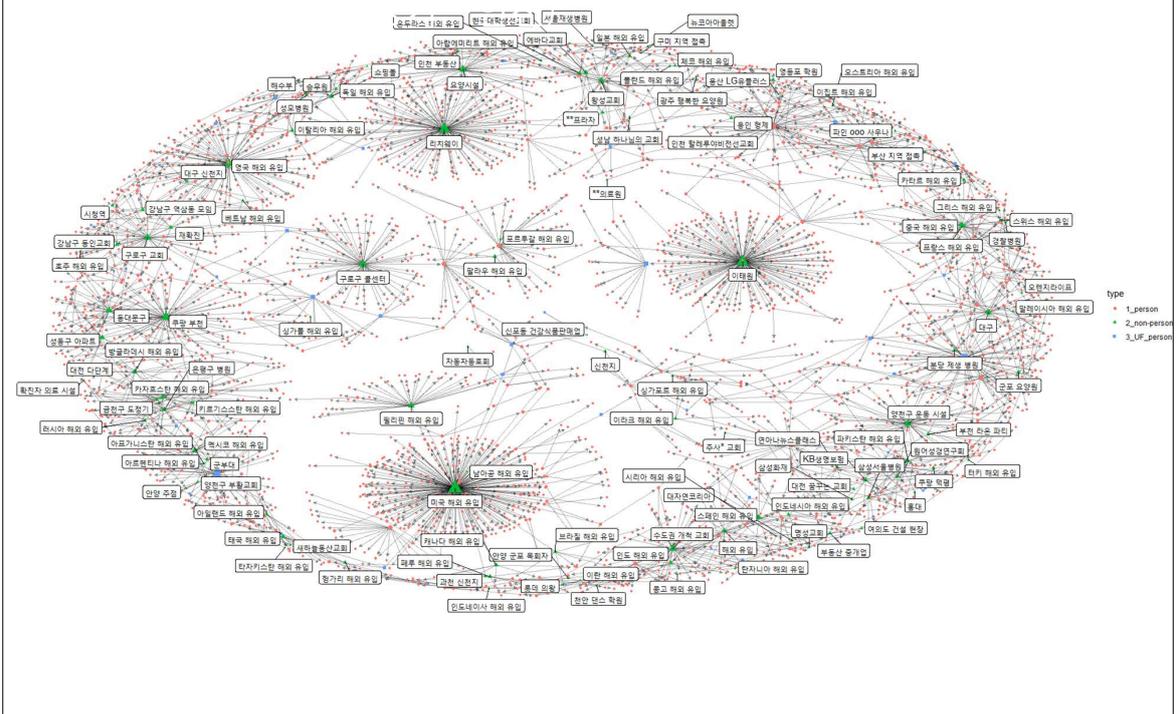
This material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it is solely for the 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전체 코로나19 전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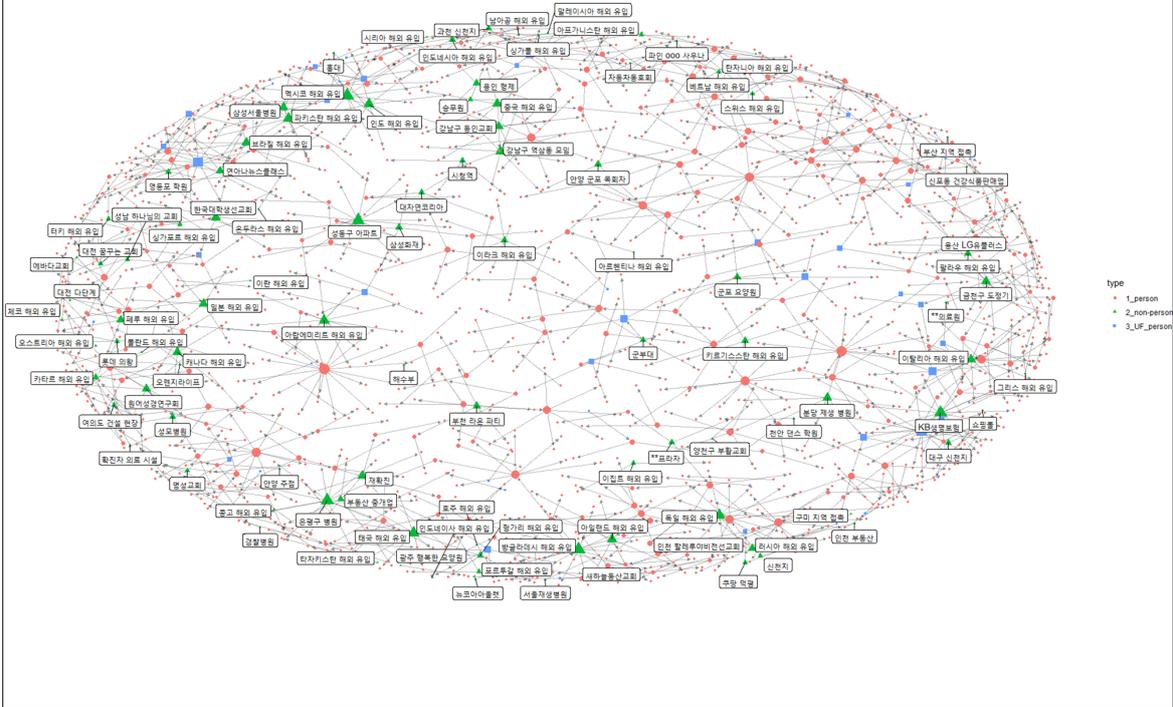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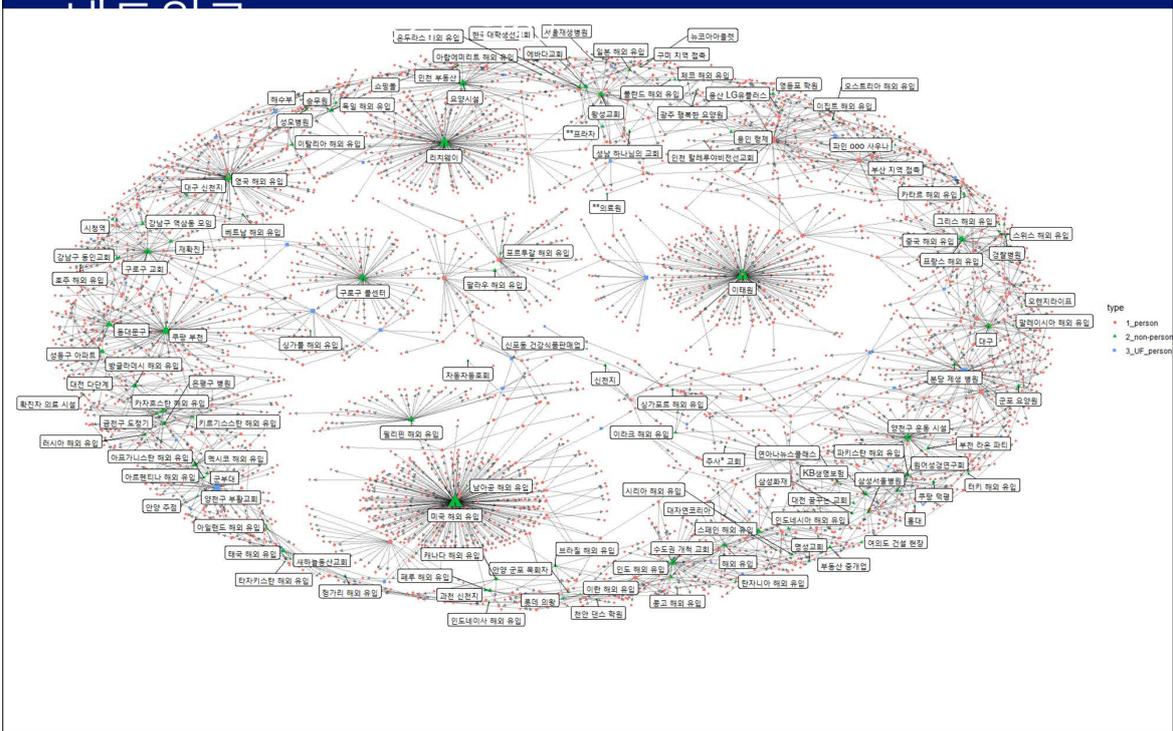
SNU responds to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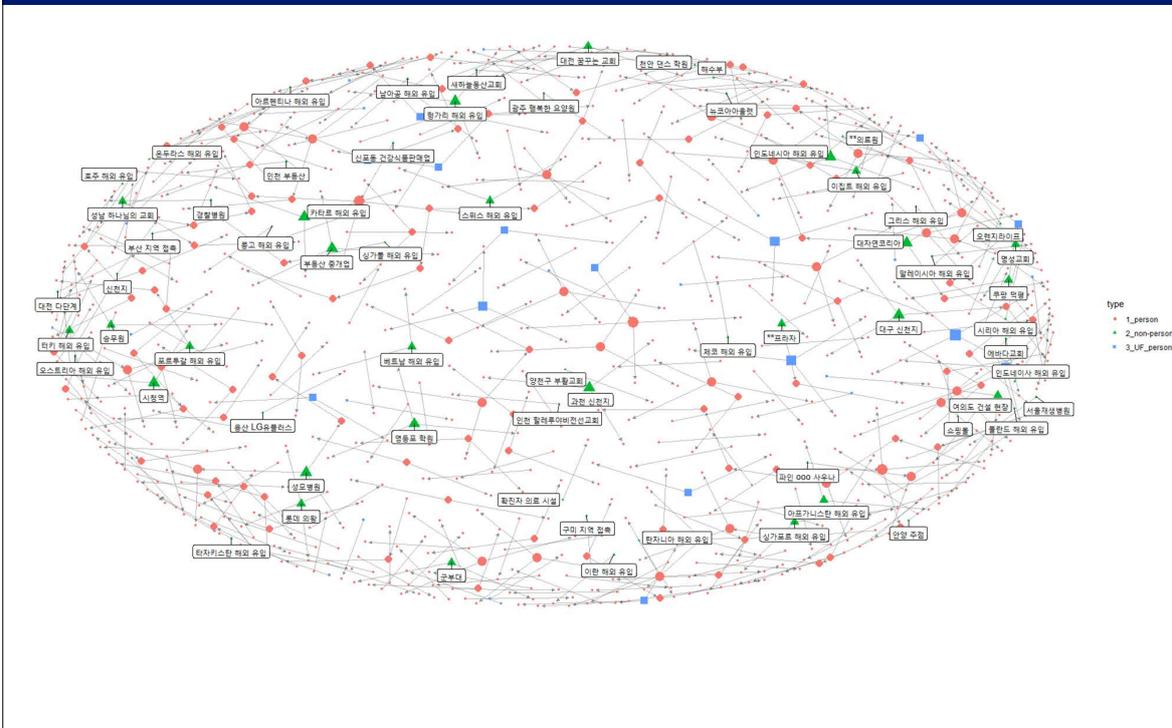
# 전파 수 상위 1% 제거시(서울·경기·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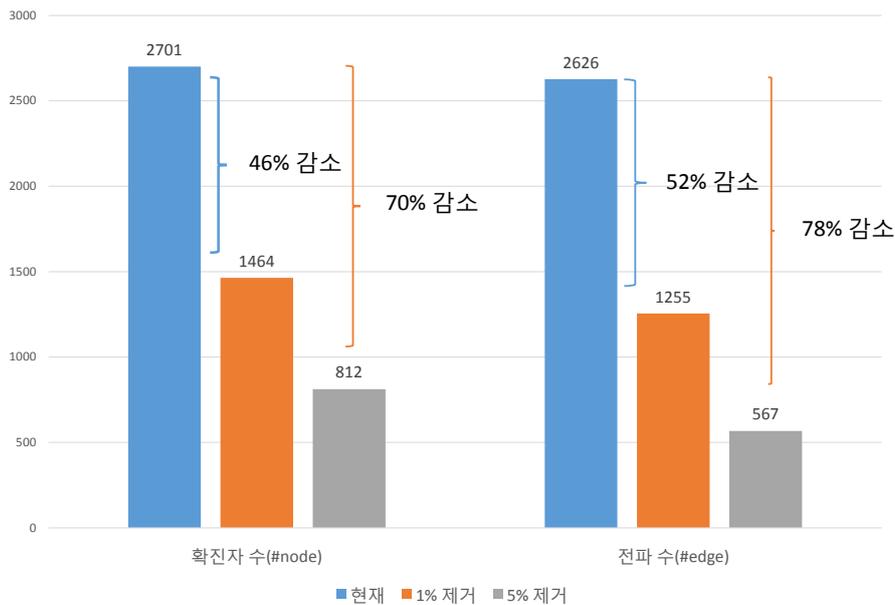
# 전체 코로나19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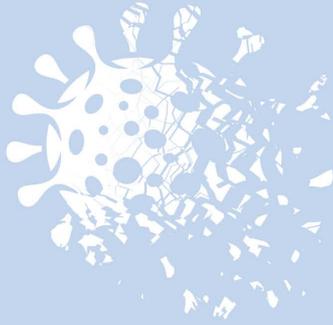


## 전파 수 상위 5% 제거시(서울·경기·인천)



## 전파 수 상위 노드 제거의 효과





## 백신이 개발된다면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responds to  
COVID-19

This material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it is solely for the 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누구에게 백신을 주어야 할까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responds to  
COVID-19



*Friendship Paradox: Why Your Friends Have More Friends Than You Do*

무작위 백신투여(random vaccination)에 비해 선택적 백신투여(selective immunization)가 2배~5배 효율적

선택된 노드의 친구에게 백신 투여

Source)

Albert Barabasi. *Network Science*  
Yiping Chen et al. 2008. "Finding a Better Immunization Strategy." *Physical Review Letters* 101(5)

내가 살려면 남에게 백신을 주어야 하는 모순 혹은 연대  
"철저하게 불행한 경험이 주는 딱 하나의 행복한 결말은 사람들을 더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적어도 한동안은 말이다."  
(Dryzek & Goodin 1986)



# 바이러스와 인간의 전략싸움 - R0와 현실의 괴리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responds to COVID-19

This material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it is solely for the 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R0는 종종 확진자 수를 over- 혹은 under-estim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responds to COVID-19

- SARS의 경우 초창기  $2.2 < R_0 < 3.6$  추정
  - 예상과는 달리 팬데믹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 토론토와 밴쿠버는 2003년 3월 거의 동시에 첫 확진자 발생. 토론토는 209명 밴쿠버는 4명으로 전파. 미국은 토론토 인구의 50배지만 확진자 69명(해외유입 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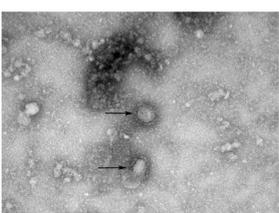
스웨덴 연구진 “코로나19 전파력, WHO 추정보다 훨씬 강해”

조선배즈 | 황인규 기자

---

입력 2020.02.17 17: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력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장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코로나19를 '괴소병'가 했으며 도마에 오른 WHO의 대응에 대해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 질병관리본부 제공

국제학술지인 역병의학저널에 지난 14일(현지시간) 공개된 스웨덴 우메오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파력은 기존 WHO의 추정치보다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메오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는 평균 3.28, 중앙값은 2.79로 나왔으며 이는 WHO의 추정치인 1.4~2.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발생했을 때, 건강한 일반인 몇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숫자다.



동생이 걱정돼 소금물을  
용액이 다할까 봐 소금물을 만든 아이.  
모두는 매일 보아오는 차사(차)이 주  
(The Korea Herald)

**테크 주요뉴스**

[단독] 홈 개인 열진 '슈니터', 대학에 사용료 받나... 학계 공동대응 예고

"내가 알던 그 '환란'이 맞나요?... 4차산업혁명 유발주목 떠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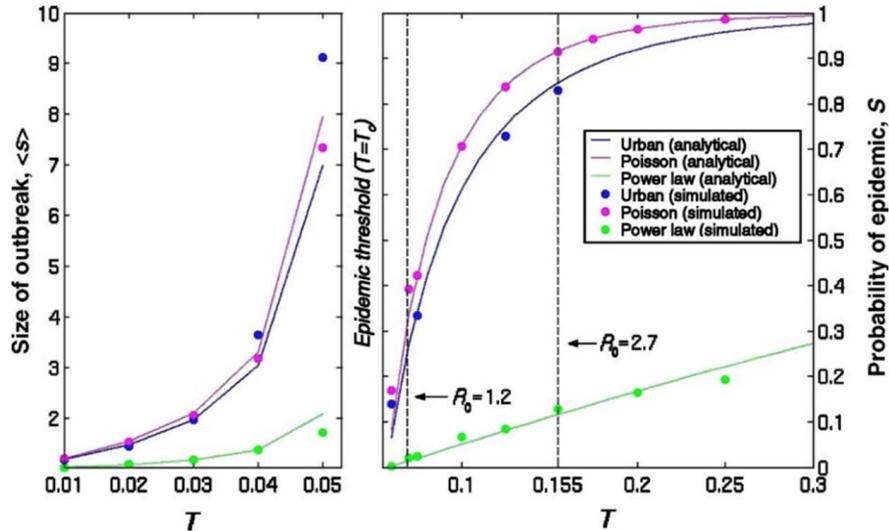
삼성 피운드러 샌드위치 필기... 우 테일 빈도제 아비지들의 공과 코드

삼성 갤럭시폴드2 등장 암시하는 전력 디지 공개

LG전자, 캘러리형 TV 맞춤형 사용자 바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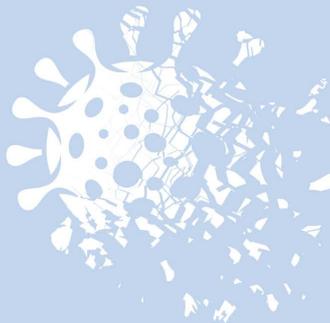
- 코로나19의 경우 2월 중순 WHO는  $1.4 < R_0 < 2.5$  예측. 스웨덴 연구진은 평균 3.28 예측
- 한국은 초창기 대구경북의 경우 7을 넘는 것으로 추정. 지금은 1 이하

# 허브를 찾기 어려운 것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Source) Lauren Ancel Meyers et al. 2005. "Network theory and SARS: predicting outbreak diversity."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32: 71-81.

\* 불평등과 방역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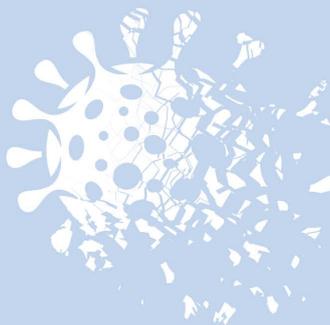


## 방역정책에 대한 함의



This material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o it is solely for the 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이 모두 필요
- ✓ 전파 수 상위 노드의 특징을 찾아내야(선택적 Lock Down?)
- ✓ 네트워크 대응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효율성 비교
- ✓ 전파 네트워크 특징을 알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 ✓ 재생산지수( $R_0$ )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면 underlying social network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 ✓ 2차 대유행 혹은 추후 감염병에 대비해 전파 네트워크 데이터 구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고맙습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 지원사업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매일경제신문 심포지엄

**초불확실성의 시대 :**  
한국의 당면 도전과제와 정책 대응방안

제 2세션

# 불확실성하의 글로벌 경제정책 대응추이와 전망

발 표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 론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박웅용 (서울대 경제학부)





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의 당면 도전과제와 정책 대응방안

# 불확실성하의 글로벌 경제정책 대응추이와 전망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2020년 11월 19일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목차



- I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 II .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추이

[참고] 주요국 경제전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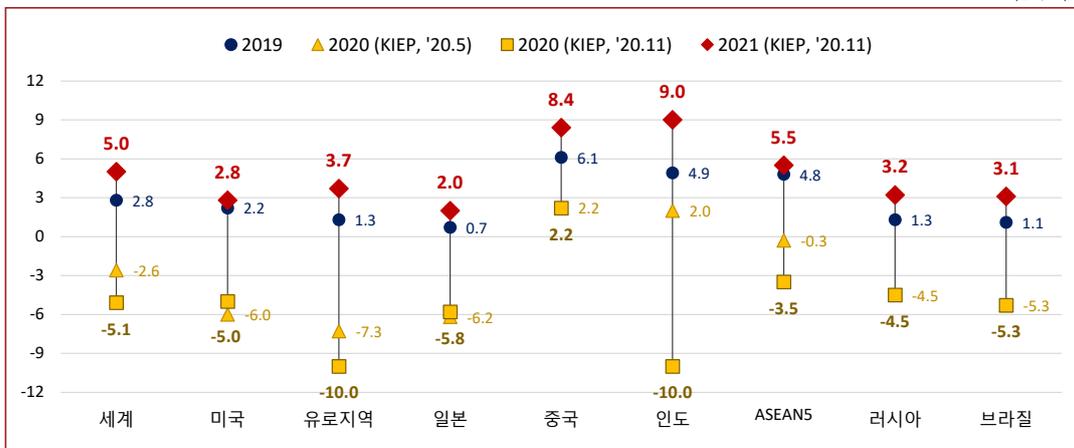
### 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0년 11월

(단위: %)



주: 1) PPP환율 기준.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KI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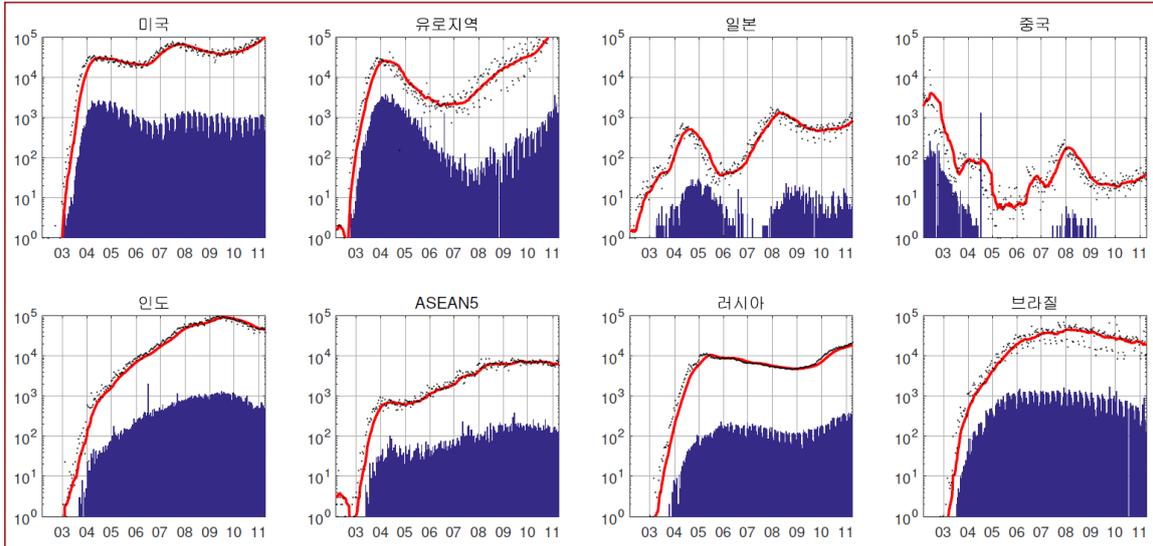
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 코로나19의 전개

▶ [전세계] 누적 확진자 5,418만 명, 사망자 131.5만명 ('20.11.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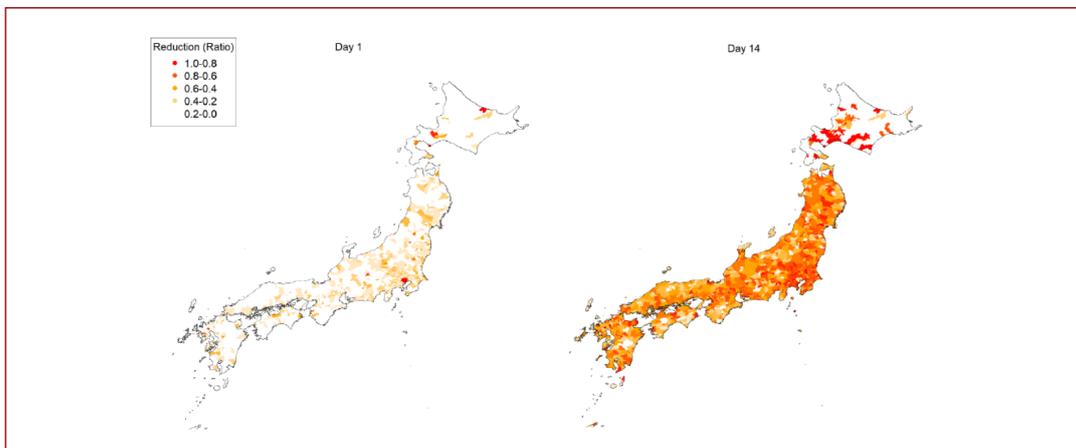
주: 일일 확진자(점선)와 14일 이동평균(실선), 사망자(막대).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 방역의 경제적 영향: 공급망을 통한 확산

도쿄의 비필수적 경제활동 봉쇄가 일본 전역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주: <https://youtu.be/-WTg4pWc9HI>  
자료: Inoue and Todo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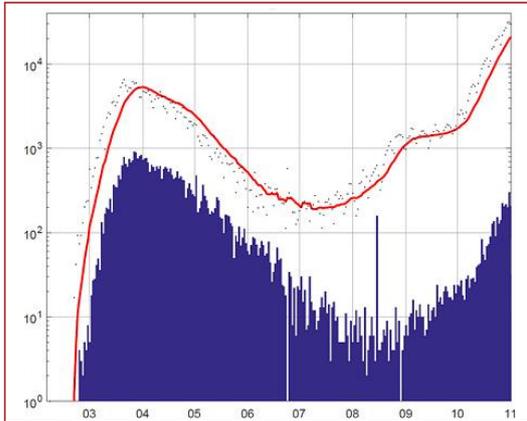
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 방역의 경제적 영향: Trade-off

➢ 봉쇄의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 봉쇄 완화 이후 재확산 가능성 상승

## 이탈리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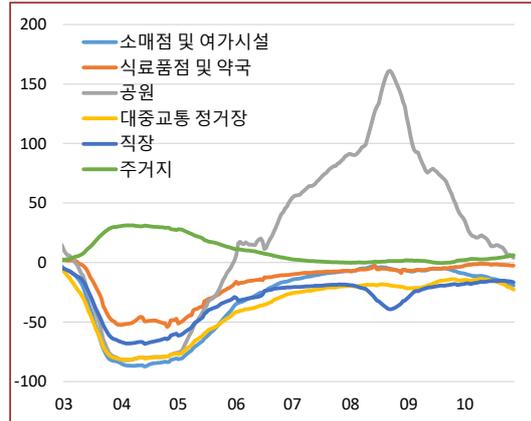
(단위: 명)



주: 일일 확진자(점선)와 14일 이동평균(실선), 사망자(막대).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 이탈리아 이동성 변화 추이

(단위: 기준값 대비 %)



주: 14일 이동평균.  
자료: 구글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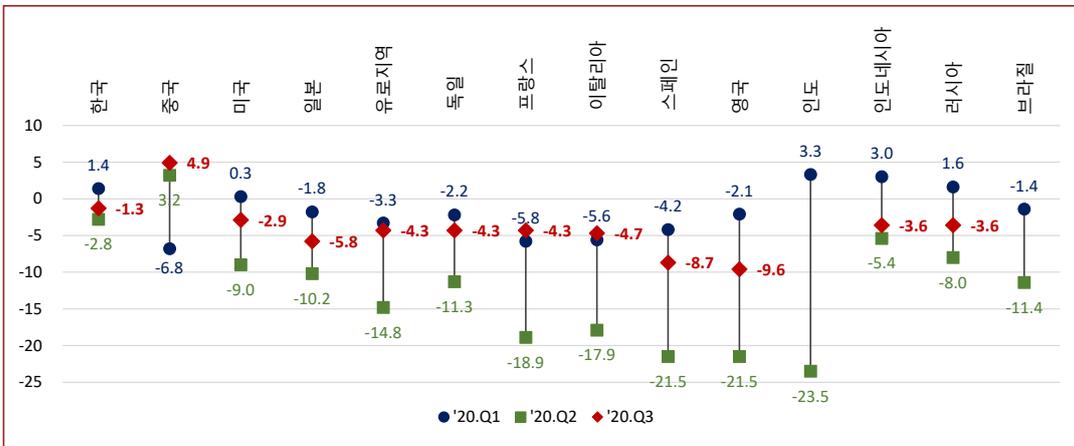
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 분기별 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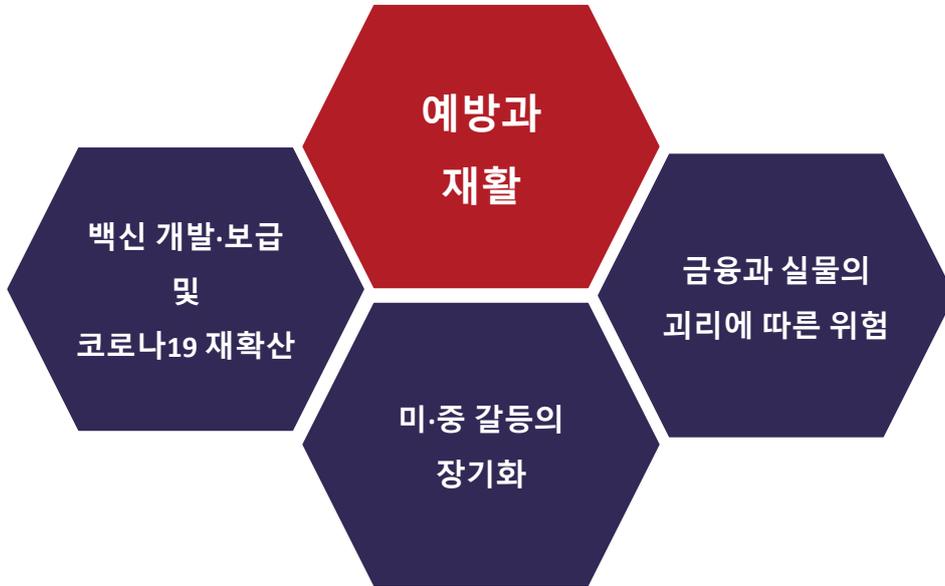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계절조정계열. 단, 일본과 러시아는 원계열.  
자료: OECD, 일본 내각부, 러시아 통계청.



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 세계경제성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



9

1.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 하방 시나리오

- ▶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20년 1.3%p, 2021년 2.8%p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재확산 △주요국 투자 감소 △위험회피도 상승 △주식가격 하락 △경기부양책 효과 약화
  - 경기침체의 악화 및 성장 경로 회복에 더 오랜 기간 소요

시나리오별 세계경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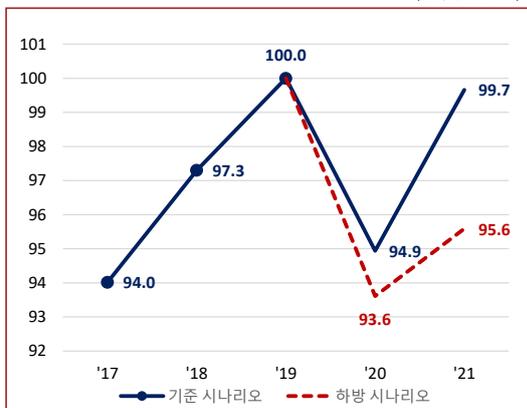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2020	2021
기준 시나리오 (A)	-5.1%	5.0%
하방 시나리오 (B)	-6.4%	2.2%
차이 (B-A)	-1.3%p	-2.8%p

자료: KIEP.

시나리오별 세계경제 성장 경로

(단위: 2019=100)



자료: KIEP.

10



## II.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세계화의 전개와 위축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환경 변화

#### 세계화 진전

냉전 종식

안보 불확실성 감소

기술진보 (ICT, 공정개선)

GVC 전개

국제분업

국경 간 거래비용 하락

신흥국 보건의료 여건 개선

#### 세계화 위축 국면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주의 강화

불평등, 양극화의 정치적 압력

GVC 전개 둔화

국경 간 거래비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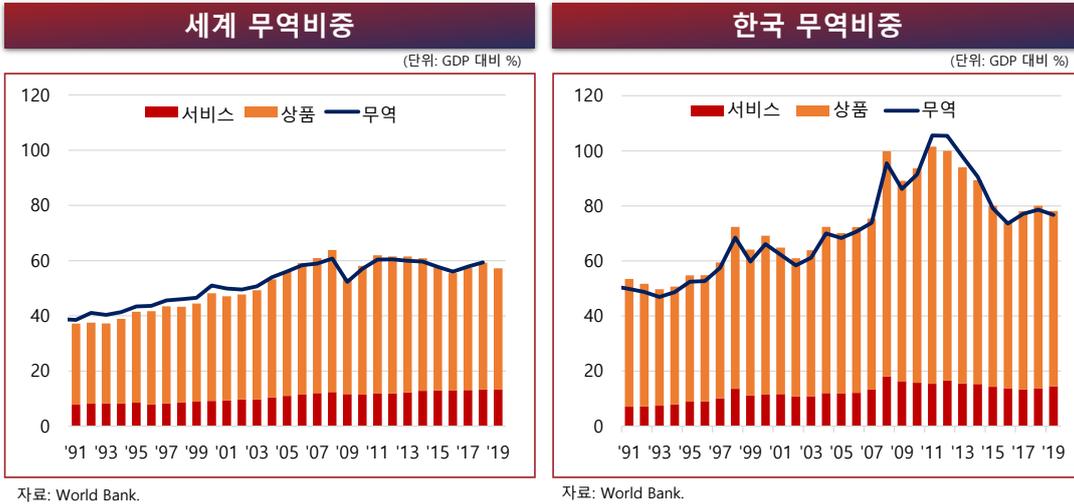
국제 에너지 시장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세계화의 전개와 위축



## 세계화와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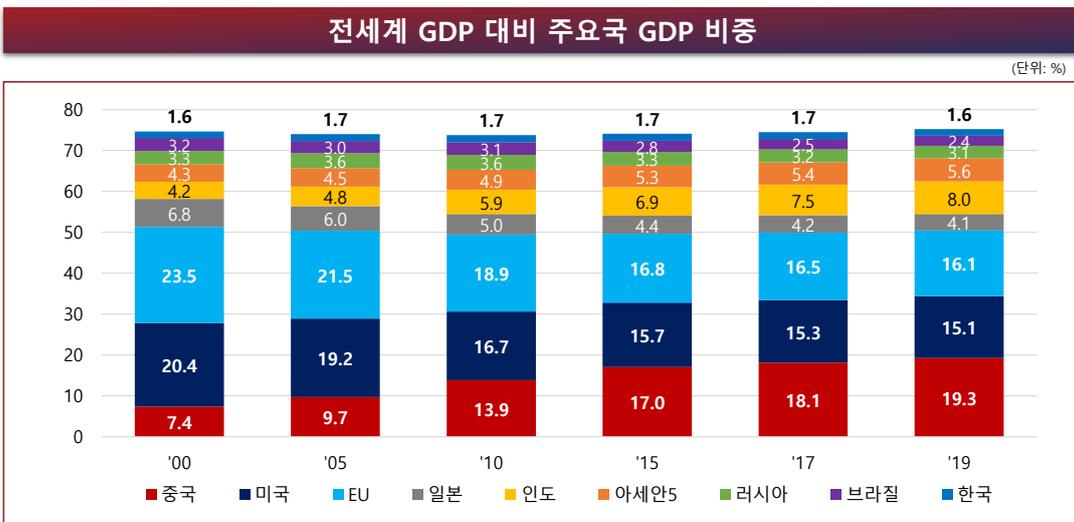


13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세계화의 전개와 위축



## 중국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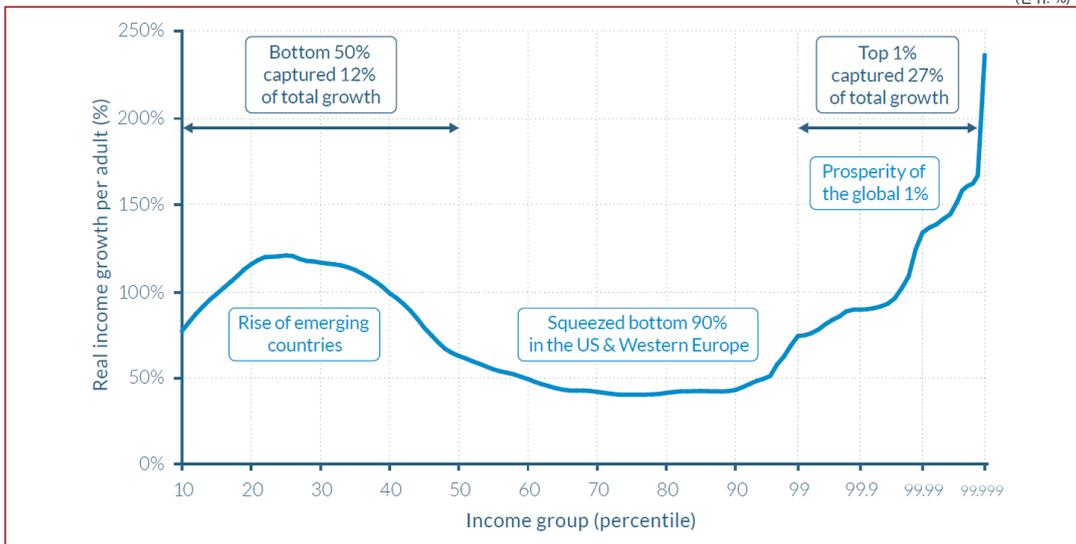
14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세계화의 전개와 위축

## 불평등의 확대

### “코끼리 곡선”



자료: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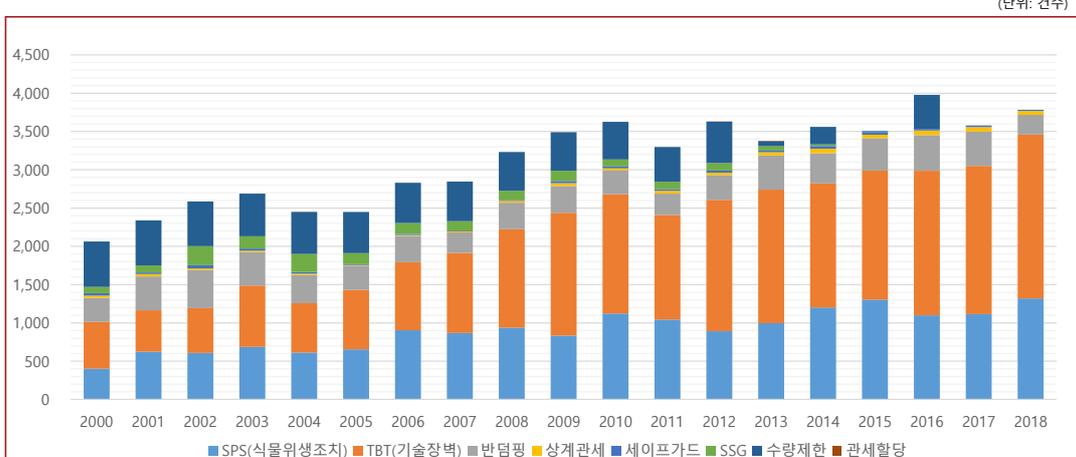
15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세계화의 전개와 위축

## 보호무역주의 심화



### 전세계 보호무역조치 건수



자료: WTO.

16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세계화의 전개와 위축



# 미·중 통상분쟁

무역마찰 (*16년 하반기~)	무역분쟁 (*18년 7월~*18년 11월)			협상 및 휴전 (*18년 12월~*19년 4월)	협상 결렬 (*19년 5월~*6월)	휴전 (*18년 7월)	확전 (*18년 8월~)	1단계 합의
	1차 리스트	2차 리스트	3차 리스트				4차 리스트	
환율조작국 지정 예고 45% 관세 부과 예고 첨단산업 규제·제재	2018.7.6 중요제조기술 관련 제품 818개 품목 (340억 달러) 25% 관세	2018.8.23 중국 IT산업 279개 품목 (160억 달러) 25% 관세	2018.9.24 중국 중간재 5,745개 품목 (2,000억 달러) 10% 관세	2018.12.1. G20 정상회의, 양국 정상회담 양국의 90일 이내 협상 완료 노력 합의 2019.1.1 예정된 3차 리스트 관세율 인상 계획 연기	2019.5.10 3차 리스트 관세율 인상 10%→25% 추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 발표 2019.5.15 화웨이 거래 제한	2019.6.29 G20 정상회의, 양국 정상회담 협상 재개 추가관세 부과 유예 화웨이 판매 허용	2019.8.1 발표 소비자 포함 3,805개 품목 (3,000억 달러) 10% 관세 부과 2019.9.1/12.15 2019.8.5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2019.8.23 발표 4차 리스트 관세율 15%로 인상 1~3차 리스트 관세율 인상 25%→30% 2019.10.1	2019.10.11 발표 2019.10.15 예정된 1~3차 리스트 25%→30% 관세율 인상 계획 연기 2019.12.13 발표 2019.12.15 예정된 1,60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무기한 연기 2019.9.1 부과된 1,1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율 인하 15%→7.5% 2020.1.14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해제
보호무역주의 경고 중국의 정책수단 강조 보복관세 부과 예고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 545개 품목 (340억 달러) 25% 관세	미국 에너지 산업 333개 품목 (160억 달러) 25% 관세	미국 수입제품 5,207개 품목 (600억 달러) 5~10% 관세	미국으로부터 콩, LNG, 원유 등의 수입을 재개 IT 시장 개방 고려 팬타닐 규제 강화	2019.6.1 3차 리스트 관세율 인상 5~25%	콩 54.5만 톤 즉각 구매	2019.8.23 발표 5,078개 품목 (750억 달러) 5~10% 관세 2019.9.1/12.15	미 농산물 구입 약속 (400~500억 달러) 2019.12.15 발표 예정의 4차 추가관세 보류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 추가관세 중단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세계화의 전개와 위축



# 미·중 기술패권 분쟁

➢ 민군겸용(Dual Use) 기술로서의 첨단기술 발전은 안보 및 패권과 관련

10대 첨단기술 특허건수 변화 2000-2010-2017



자료: 日本經濟新聞,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patent-w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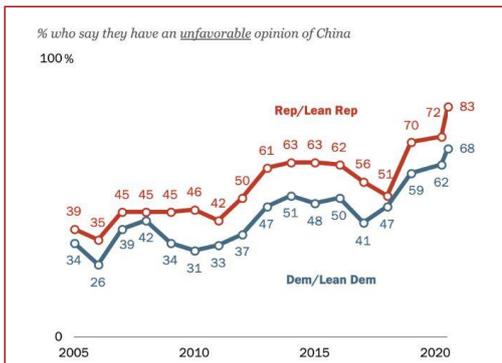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세계화의 전개와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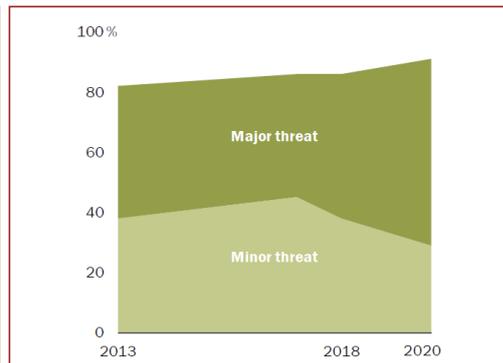
## 미·중 갈등의 장기화

- 불공정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
- 중국의 강경한 대응
- 미국내 초당적 반증정서
- 갈등의 제도화

###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자료: Pew Research Center (2020.7.30).



자료: Pew Research Center (2020.4.21.)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

### 세계화 위축 국면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주의 강화

불평등, 양극화의 정치적 압력

GVC 둔화

국경 간 거래비용 상승

국제 에너지 시장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 포스트코로나

코로나19 팬데믹

보건위험의 내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GVC 재편

불평등 인식 심화

위기대응의 결과

정부개입 강화

불확실성 확대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 일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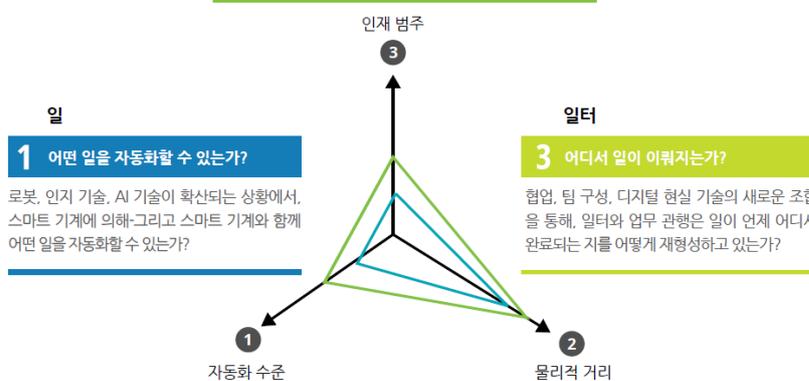


- △ 현재의 일 대안
- △ 미래의 일 대안

**일꾼**

**2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인제 플랫폼과 근로 계약을 통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정규직부터, 관리 서비스, 자유계약직, 깃(gig) 노동자, 대중으로까지 이어지는 인력자원의 연속체를 활용 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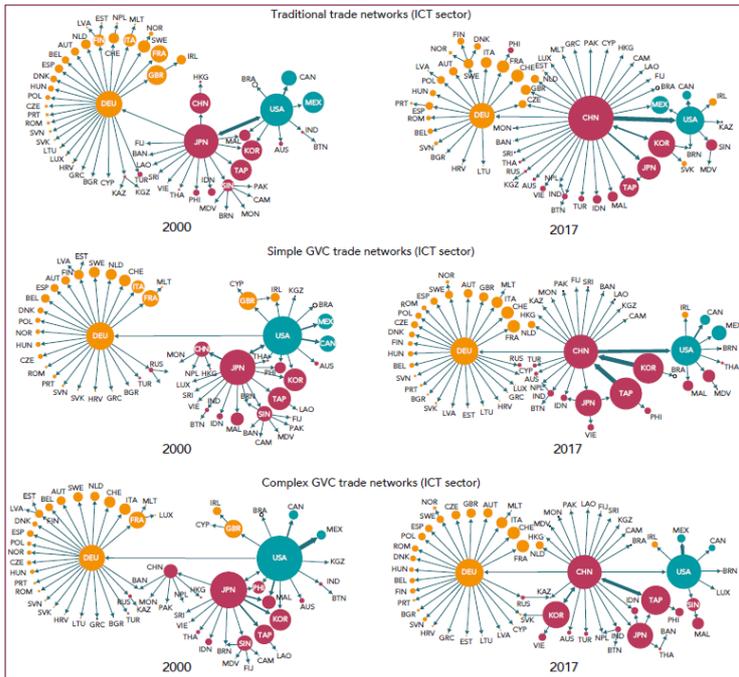


자료: Deloitte.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 가치사슬의 지역화 및 다핵화



▶ 대상국 리스크와 공급망 회복력 등을 고려한 보다 안전한 생산체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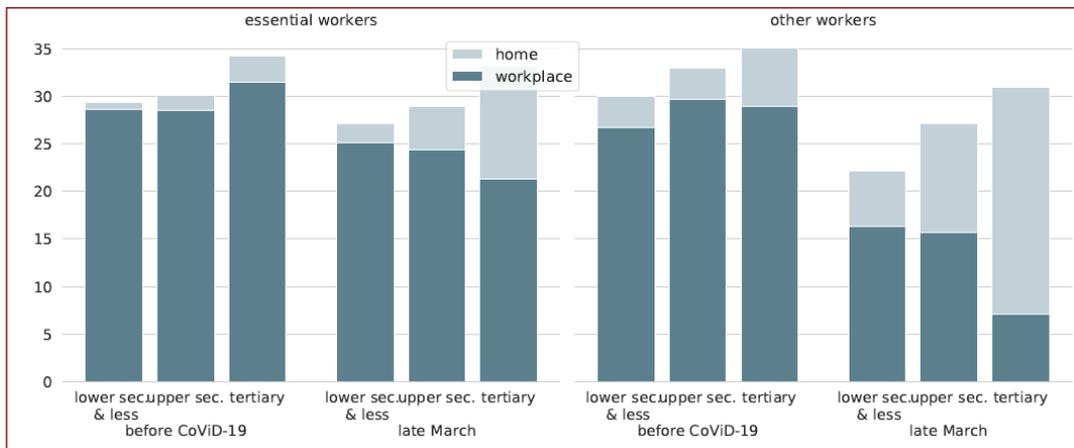
자료: WTO(2019).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 불평등 인식의 심화: 노동환경



## 재택근무 시간의 변화: 교육수준과 필수노동자 여부



주: 네덜란드 노동자 5,500명 대상 조사(3.20~31일).  
 자료: von Gaudecker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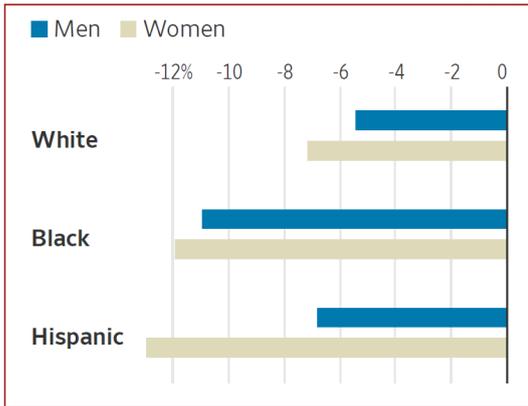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 불평등 인식의 심화: 고용

미국 성별·인종별 고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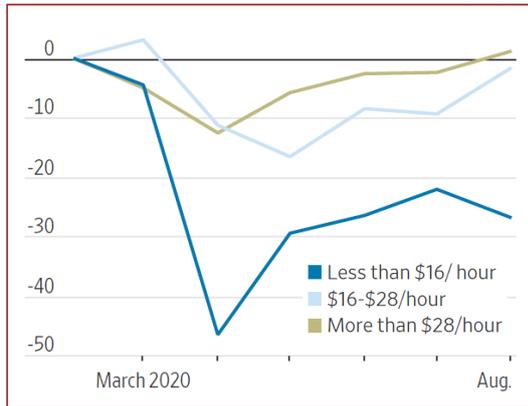
(단위: %)



주: 2020년 2월 대비 2020년 9월, 20세 이상, 계절조정  
자료: Wall Street Journal (2020.10.5).

미국 임금별 고용의 변화

(단위: %)



주: 계절조정.  
자료: Wall Street Journal (2020.10.5), Evercore ISI 재인용.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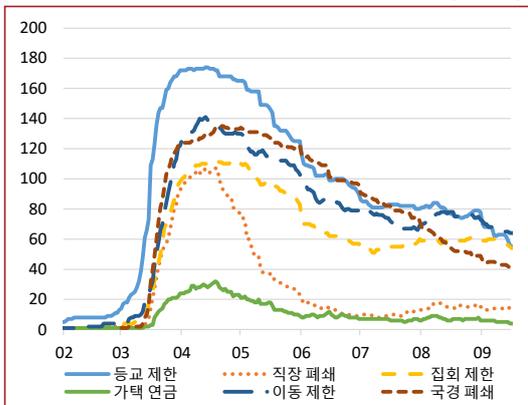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 정부개입 강화



전세계 활동 제한조치 도입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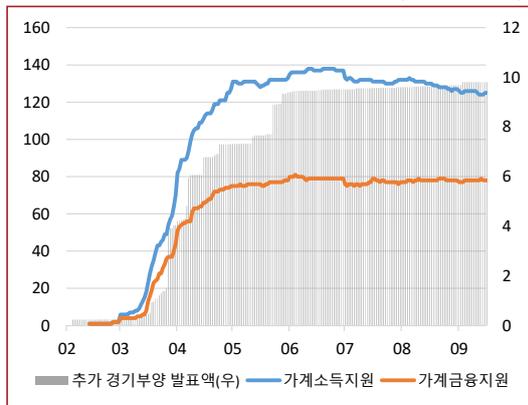
(단위: 개국)



자료: University of Oxford. "Coronavirus Government Policy Tracker"

전세계 경제지원 도입 국가 및 규모

(단위: 개국, 조 달러)



자료: University of Oxford. "Coronavirus Government Policy Tracker"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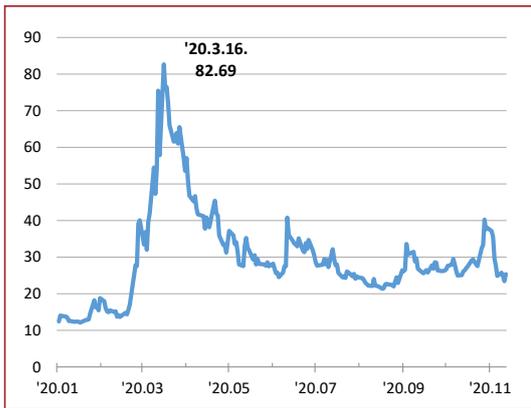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 금융안정조치와 양적완화

➢ 신용경색 우려에 따른 금융부문 불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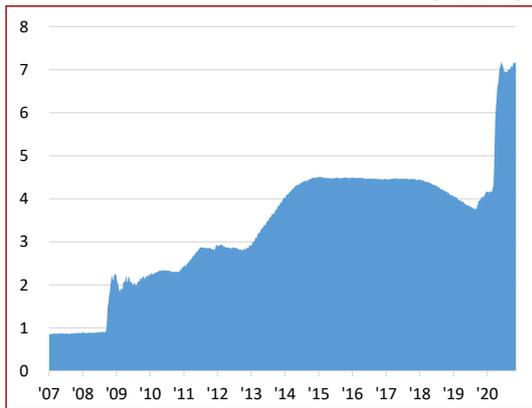
- 금융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는 글로벌 금융위기 최고치(80.86, '08.11.20)를 경신
- 미국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비롯한 금융안정조치 시행

**VIX**



자료: Datestream.

**미국 연준의 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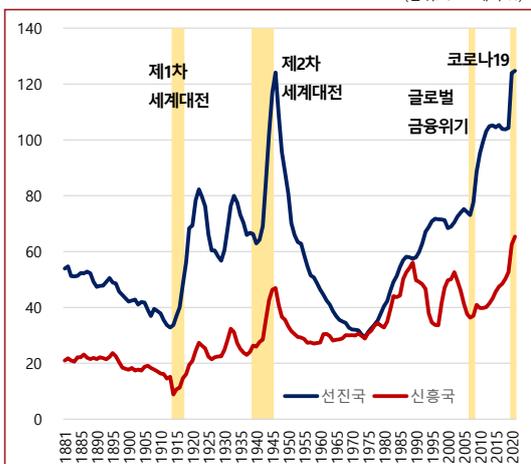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 재정 여력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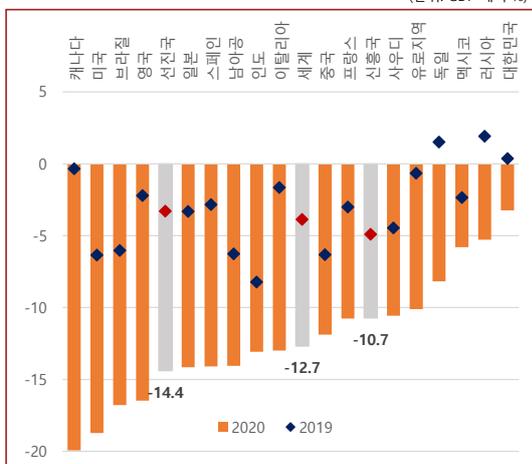
- IMF는 2021년말 GDP 대비 정부부채를 선진국 124.7%(제2차 세계대전 직후 124.1%), 신흥국 65.3%로 추정
- 재량 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및 실업급여 증가 등에 따라 재정 악화 전망

**정부부채 변화 추이**



자료: IMF Fiscal Monitor(2020.10).

**주요국의 재정적자 규모**



주: 2020년은 전망치.  
자료: IMF Fiscal Monitor(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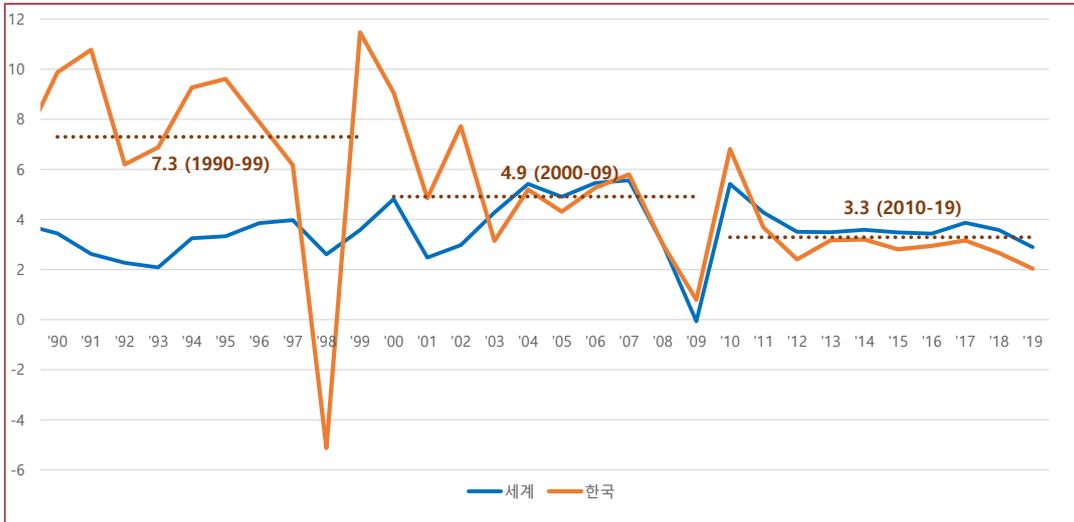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 위기 이후 성장률 둔화

### 연평균 성장률

(단위: %)



자료: IMF.

29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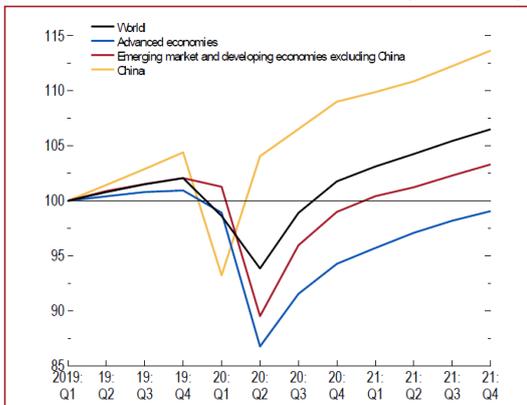


## 성장경로의 회복?

▶ 장기적으로는, 신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 따를 전망

### IMF 전망('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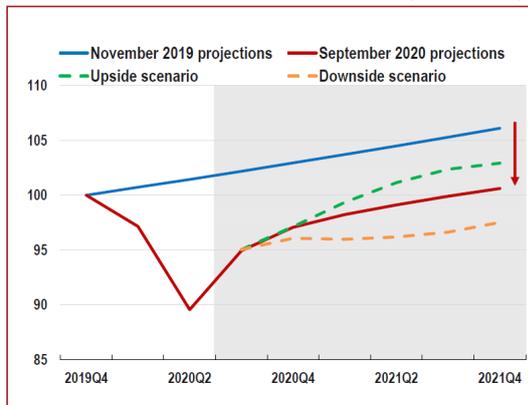
(단위: '19.Q1=100)



자료: IMF.

### OECD 전망('20.9)

(단위: '19.Q4=100)



자료: OECD.

30

2.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추이: 포스트 코로나



[부록] 주요국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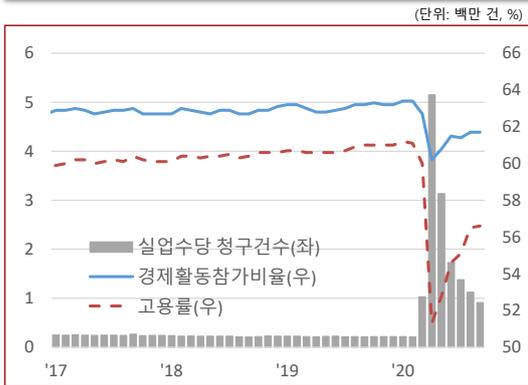


[부록] 주요국 경제전망

## 미국, 성장 모멘텀 우려 속 2.8% 성장

- 고용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에 대한 우려 제기
  - 코로나19 초기 서비스업 임시직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대기업으로 확산
-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이 경제성장 모멘텀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견 존재
  -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 기후변화 적극 대응,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서 정부 역할 강화, 관세 인상 압력 완화 등
  - 재정지출의 역할이 중요하나 양당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상원에서 민주당 우위가 불확실한 상황

### 미국 고용과 실업수당 청구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월평균.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20.10).

### 미국 ISM 제조업지수



주: ISM 제조업 지수의 50 이상은 경기 확장, 미만은 수축을 의미함.  
자료: 미국 공급관리협회(2020.9).

33

[부록] 주요국 경제전망

## 유럽, 봉쇄 이후 재정 확대로 3.7% 성장

-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 실시와 재확산이 반복되는 양상
- 높은 정부부채에도 회원국의 재정적자 개선과 저금리 기조로 재정여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
  - EU의 재정 준칙 적용 유예 승인
  - EU 차원의 7,500억 유로 규모 경제회복기금(NGEU)은 회원국들의 재정부담을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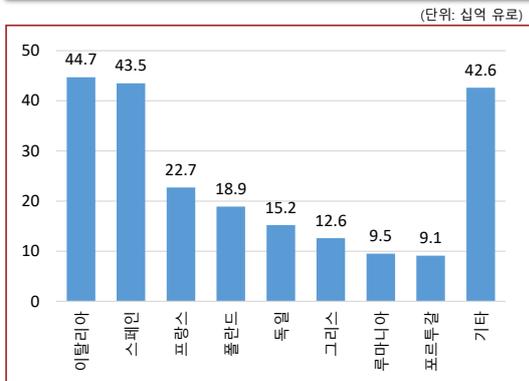
###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규모

(단위: 2019년 GDP 대비 %)

국가	직접지원	세금·공과금 납부 유예	대출보증
벨기에	1.4	4.8	21.9
프랑스	4.6	8.7	14.2
독일	8.3	7.3	24.3
이탈리아	3.4	13.2	32.1
네덜란드	3.7	7.9	3.4
포르투갈	2.5	11.1	5.5
스페인	3.7	2.3	15.4
덴마크	5.5	7.2	4.1

자료: Bruegel(2020.10).

### EU 경제회복기금 국별 보조금 배분 전망



자료: Deutsche Bank(2020.10).

34



[부록] 주요국 경제전망

## 일본, 소비 회복 지연 속에 2.0%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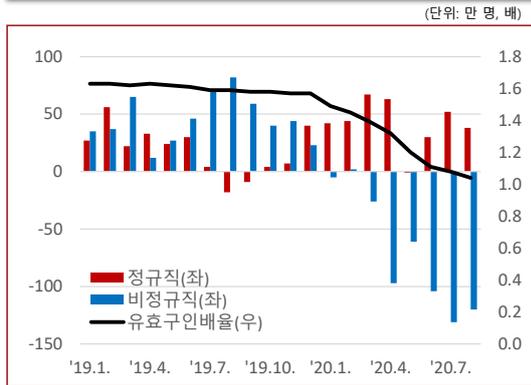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 수출 급감 및 민간소비, 공공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침체
  - 개인소비의 침체 속에, 가처분 소득 증가(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이 크게 저하
  - 노동시장 위축과 고용 불안 등으로 고용지표 악화
- ▶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라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어 정부의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은 불투명

### 일본 실질소비활동지수



자료: 일본은행.

### 일본 고용자 수 증감 및 유효구인배율



주: 고용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유효구인배율은 계절조정치.  
자료: 일본 총무성.

35

[부록] 주요국 경제전망

## 중국, 성장경로 회복하며 8.4% 성장



- ▶ 경제사회 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장기 성장경로로 근접
  - '전면적 샤오강 사회' 진입의 첫 해이면서 14차 5개년 계획(2021~25)이 시작하는 해
- ▶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기조 변화가 가장 큰 리스크
  -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쌍순환 발전전략을 마련
  - 대외리스크를 줄이고 내수 위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

### 중국 주요 경제지표

(단위: %)

	2019	2020		
		Q1	Q2	Q3
실질GDP	6.1	-6.8	3.2	4.9
소매판매	8.0	-19.0	-4.0	0.9
고정자산투자	5.4	-16.1	-3.1	0.8
수출	0.5	-13.3	0.1	8.8
수입	-2.8	-2.9	-9.7	3.2
산업생산	5.7	-8.4	-4.4	5.8
CPI	2.9	5.0	2.7	2.3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정자산투자는 누계치.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해관총서, CEIC.

### 중국 실업률과 고용증감율



주: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신규고용은 누계치.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36

[부록] 주요국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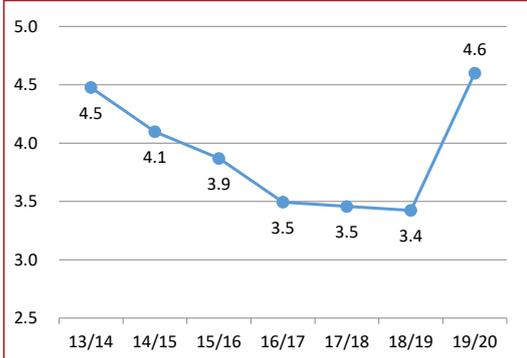


## 인도, 불확실성 속 기저효과로 9.0% 성장

- ▶ 정부는 단계별 봉쇄 해제조치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지속
  - Unlock 1.0('20.6월)을 시작으로 봉쇄해제를 확대하며 Unlock 5.0('20.10월) 시행 중
- ▶ 대규모 경기부양책 도입이 요구되는 가운데, 심각한 수준의 세입 감소로 재정적자 증가 전망
- ▶ 신용경색의 확대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권의 구조조정 지연은 주요 하방요인

인도 재정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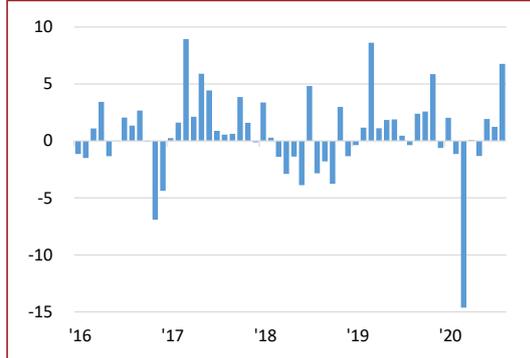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CEIC.

인도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순유입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EIC.

37

[부록] 주요국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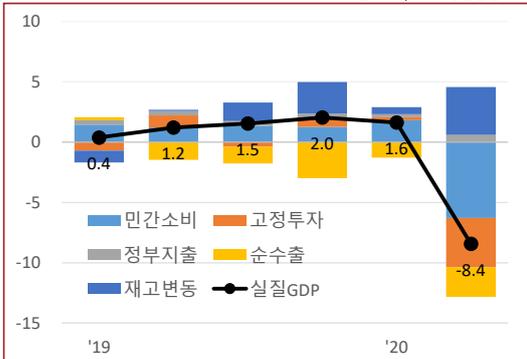


## 러시아, 재확산 조기 진정 시 3.2% 성장

-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도입
  - 국내에서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유급휴가' 라고 불리는 전역적 봉쇄조치 시행
  -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정부수입 감소와 수요진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정부재정의 적자 전환
  - 2021년 유가 배럴당 43.3달러를 기준으로 2.4% 재정 적자를 기록할 전망

러시아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GDP성장률은 %)



자료: IHS Markit.

러시아 재정흑자

(단위: GDP대비 %)



자료: 러시아 재무부.

38

[부록] 주요국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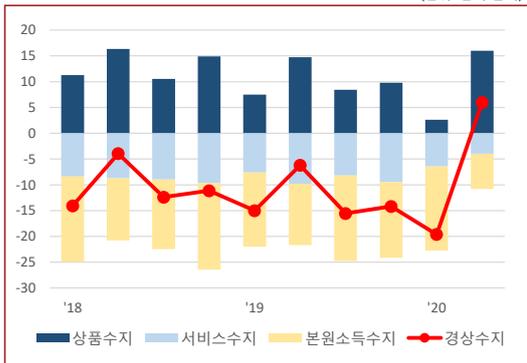


## 브라질,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3.1% 성장

-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방역 대응과 적극적인 재정책장으로 비교적 양호한 경제 상황
  - 경기부양책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
- 2019년 연금개혁안 통과 이후 재정건전성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재정여력 약화
  -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9년 마련되었던 다양한 개혁안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브라질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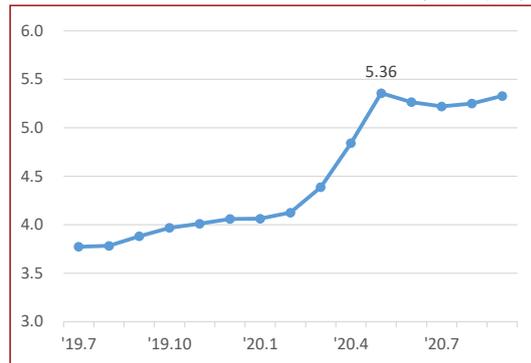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브라질 헤알화 환율

(단위: 헤알/달러)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 감사합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 지원사업단,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매일경제신문 심포지엄

**초불확실성의 시대 :**  
한국의 당면 도전과제와 정책 대응방안

제 3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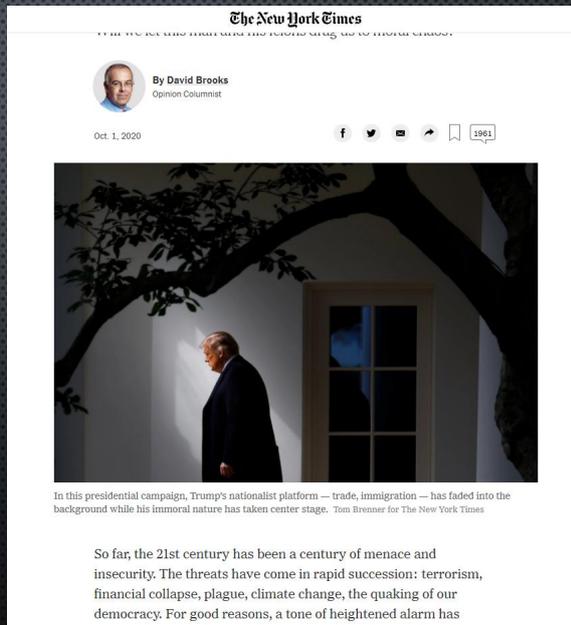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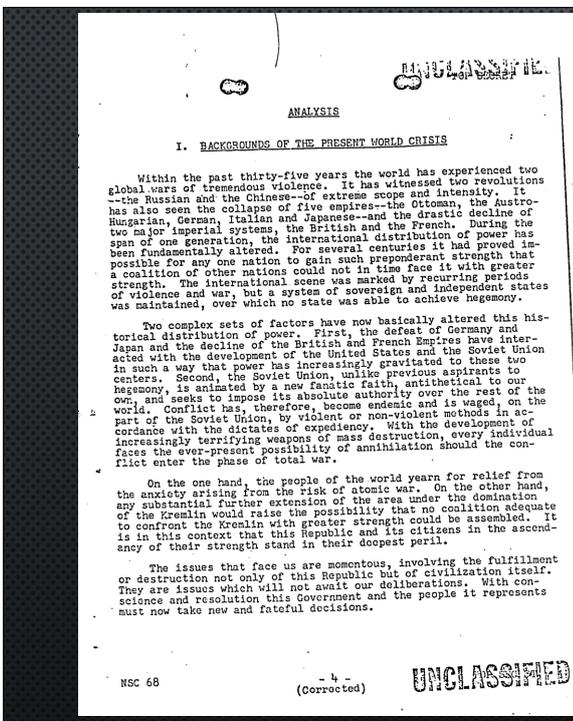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질서 변화양상과 시사점

발 표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토 론 주용식 (중앙대 국제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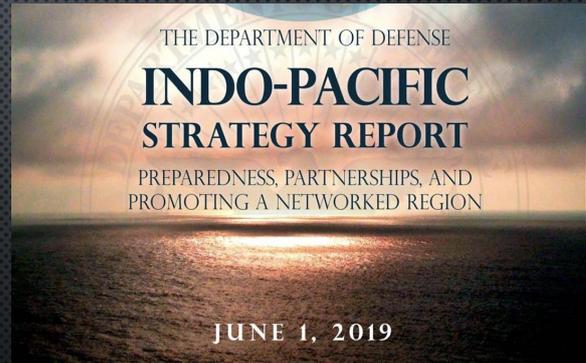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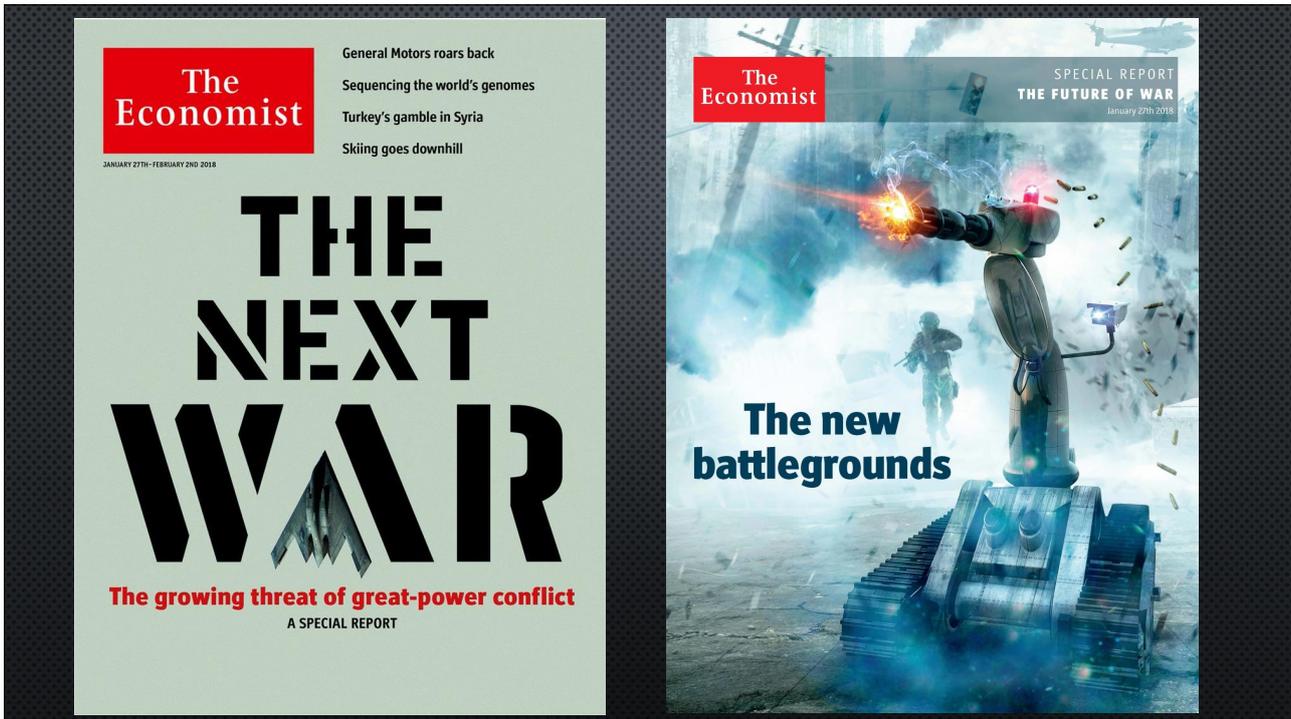
## 21세기 국제질서

- 세계화의 퇴조
- 4차산업혁명과 군사혁신
- 지정학과 강대국패권 경쟁의 부활: 미중, 유럽과 러시아, 중일, 인도-중국
- 미국 주도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후퇴: 유럽의 브렉시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 동북아 세력전이와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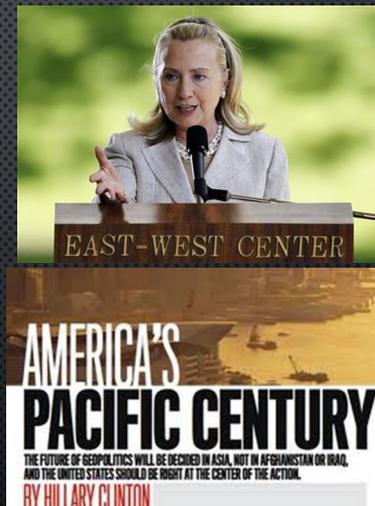
## 21세기 미중 경쟁





## 오바마 아시아 정책

- "AMERICA'S PACIFIC CENTURY" – HILLARY CLINTON
  - 미국은 범대서양(TRANS ATLANTIC) 국가인 동시에 범태평양 (TRANS PACIFIC) 국가
  - 20세기가 서구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
  - 지난 60년간 유럽중심외교에서 앞으로 60년간은 아시아 중심외교
  - 6원칙:
    - 1) 양자간 안보 동맹 강화 (주요 5개국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 2) 중국을 포함한 신흥 국가와의 협력 강화
    - 3) 지역 다자기구와의 교류 확대
    - 4) 무역 및 투자 증대
    - 5) 포괄적인(BROAD-BASED) 미군 배치 (MILITARY PRESENCE)
    - 6) 민주주의와 인권 증대



## 트럼프 아시아 정책

- INDO-PACIFIC STRATEGY
-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 CHINA AS A "STRATEGIC COMPET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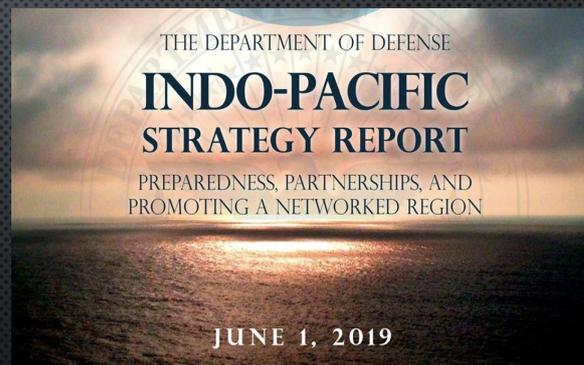
오바마 6원칙 파기?:

- 1) 양자간 안보 동맹 비용 분담 강화 (주요 5개국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 2) 중국에 대한 견제: ASIA-PACIFIC에서 INDO-PACIFIC
- 3) 지역 다자기구 경시
- 4) 보호 무역: TPP 파기
- 5) 미군 배치 축소
- 6) 민주주의와 인권 경시: 러시아 푸틴, 필리핀 두테르테, 북한 김정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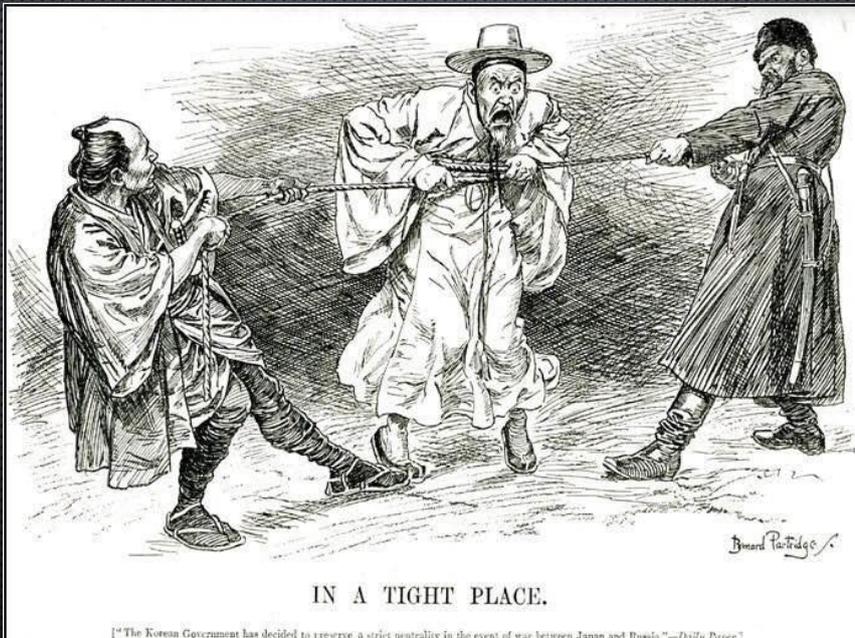
## 트럼프 인도-태평양 전략

- 중국·러시아·북한 그리고 초국가적 위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위협
- 특히 최근 중국이 추구하는 GRAY ZONE 전략과 경제적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지역 국가들을 회유 포섭하여 지정학적 영향력을 높히려는 의도를 견제
- 중국이 현 질서를 전복하려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헤게모니(패권)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
-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설득을 언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현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를 그냥 바라보지는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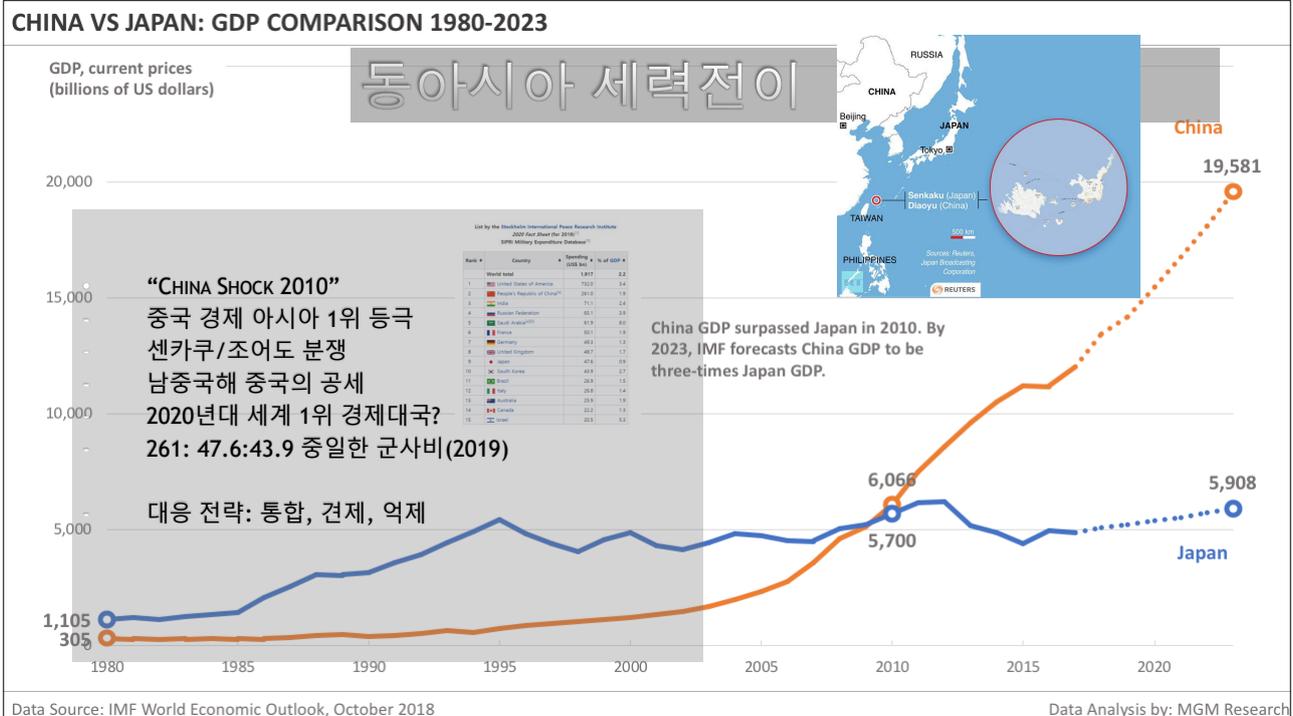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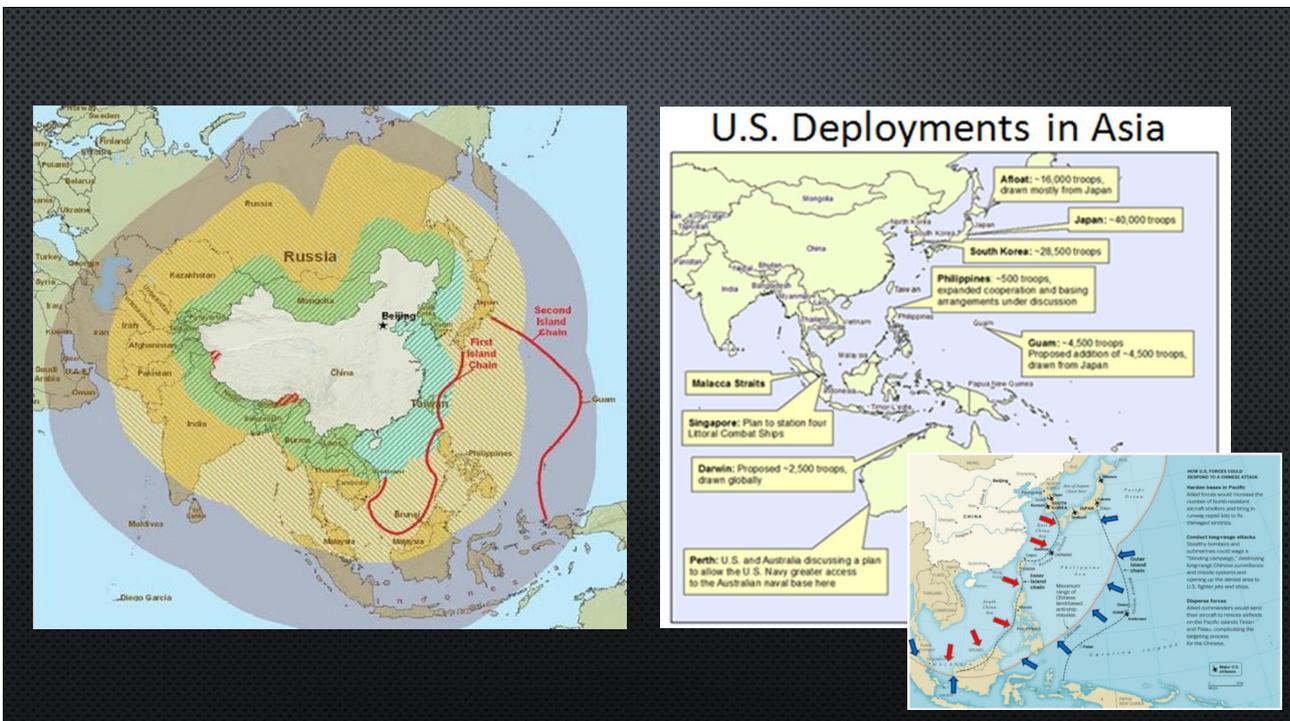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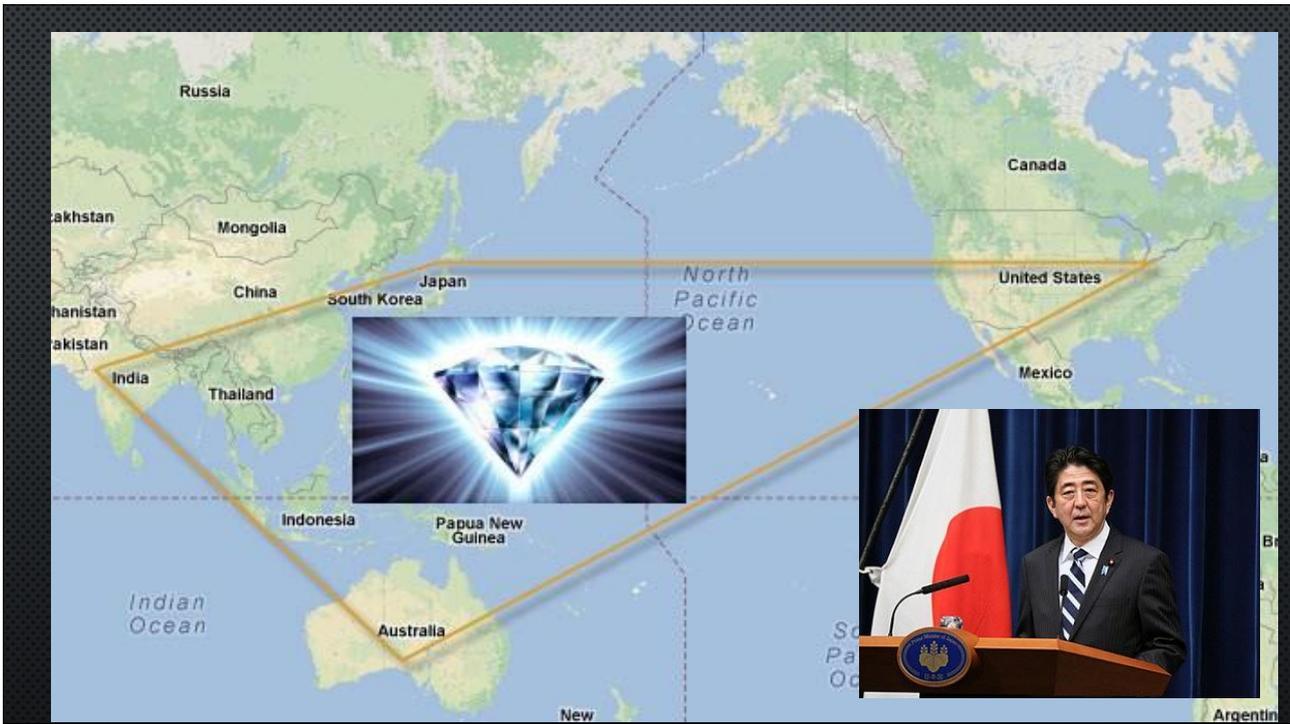
## 21세기 한국의 선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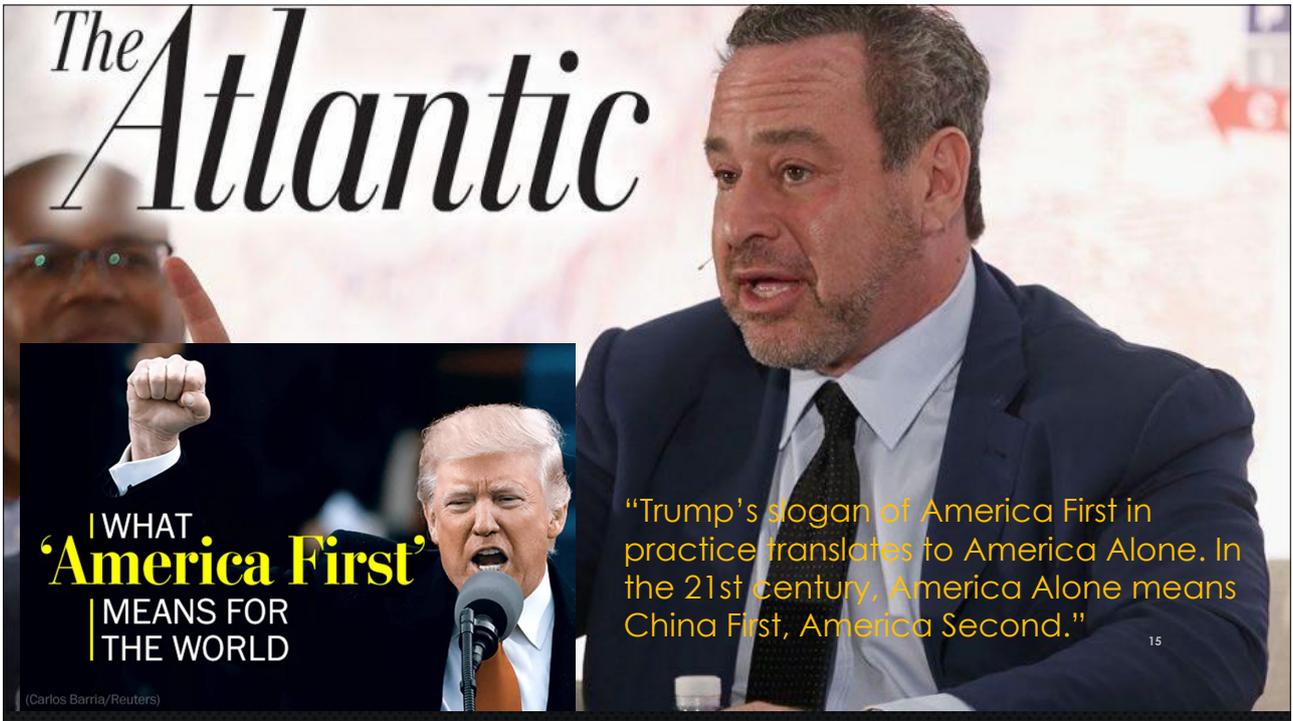
- 16세기말(1592-98) 왜란과 17세기 초 호란(1627, 1636): 선조, 광해군과 인조 (명과 청)
- 19세기 청일전쟁과 21세기 초 러일전쟁: 광해군과 고종, 민비(청과 일, 서양)
- 21세기 세력전이와 신형대국관계: 대한민국과 김씨왕조 (한미동맹과 중국)
- 트럼프와 한반도 전쟁?



Harper's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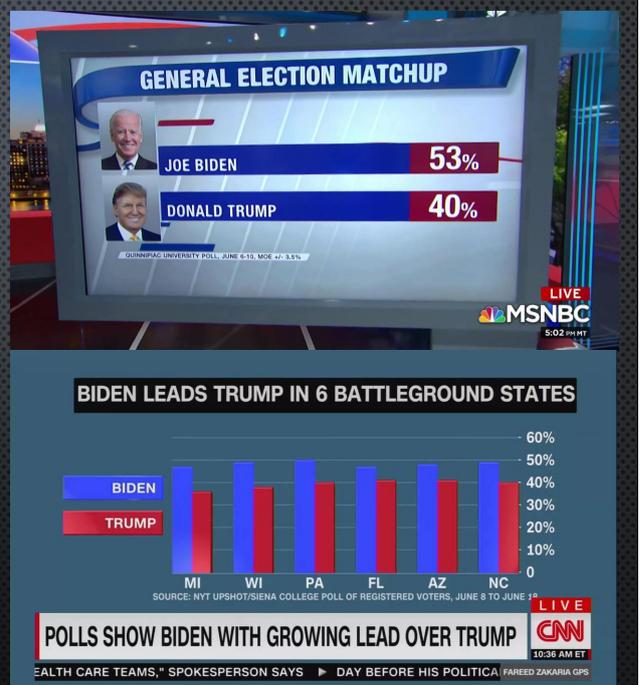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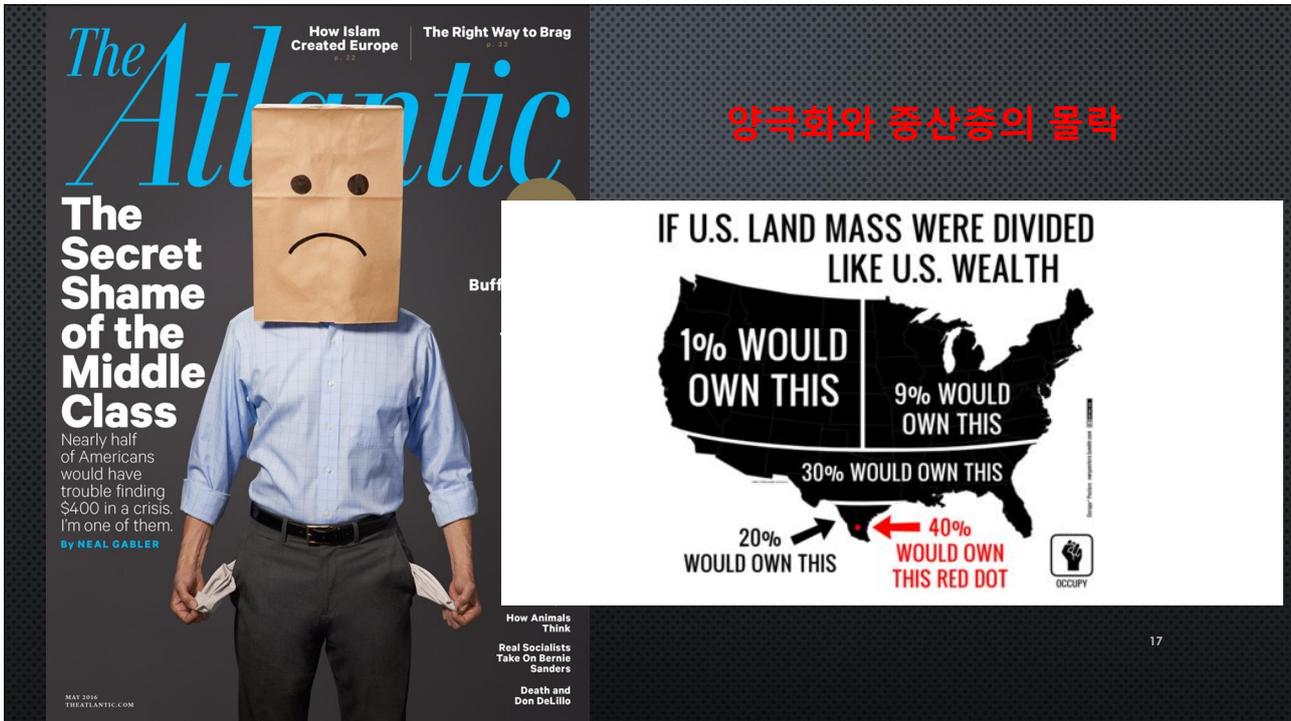




## 2020 미대선

1. 코로나 사태: 1918
2. 경제 상황: 1929
3. 인권 시위: 1968
4. 대선토론, 연방대법관 교체
5. 10월 서프라이즈: TRUMP 코로나 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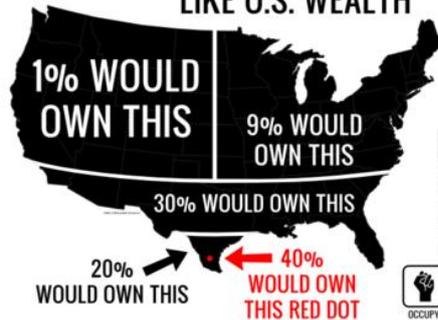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

The Secret Shame of the Middle Class

Nearly half of Americans would have trouble finding \$400 in a crisis. I'm one of them.

By NEAL GABLER

IF U.S. LAND MASS WERE DIVIDED LIKE U.S. W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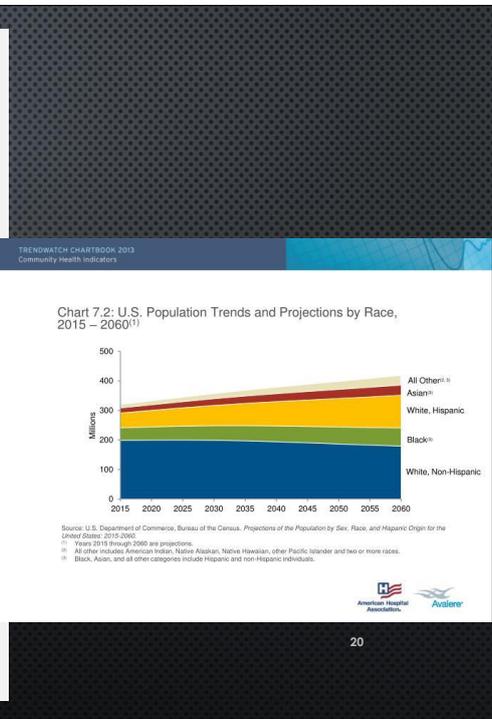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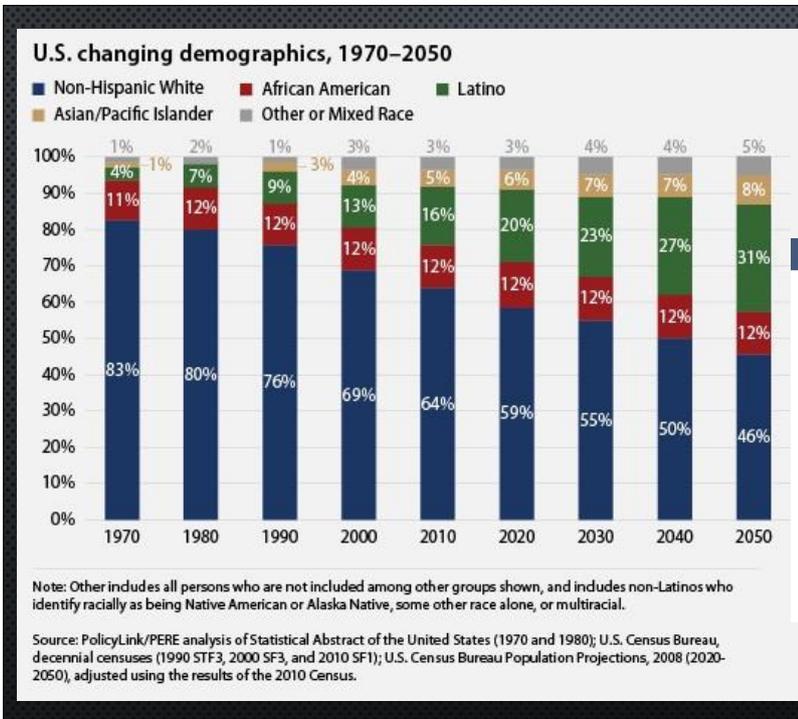
17



기독교 보수 백인 여성 지지자들

2018 11월 중간선거  
트럼프 대중 연설장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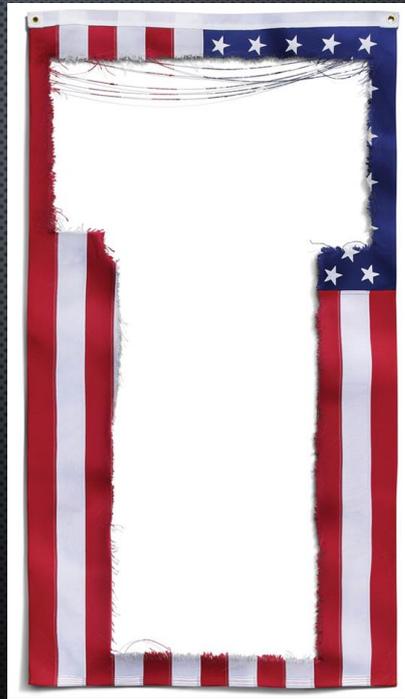
18



America After Trump:  
Even if he loses the next  
election, the damage he's  
done to our political system  
will be lasting.

**DAVID FRUM**

December 2019 Issue



21

The Atlantic

Popular Latest



How to Stop a Civil War

ERIK MORGENDORF / LIGHTROCKET / CAROLYN VAN HOUTEN / THE WASHINGTON POST

The Dishonesty of the Abortion Debate

CAITLIN FLANAGAN



Trump Supporters: "Core America" white, rural, John Wayne, football, hunting

PHOTOGRAPH BY SAM KAPLAN. PROF. STYLING BY BRIAN BYRNE

## How America Ends

A tectonic demographic shift is under way. Can the country hold together?

YONI APPELBAUM



picture-alliance/AP Photo/N. Berger

Against Reconciliation

ADAM SERWER

Video: 'Veterans Are Misunderstood'

EMILY BUDER

Sign up for our daily newsletter.

Email address

Sign up

### U.S. ELECTION 2016

**232** Biden    **306** Trump

#### PRESIDENTIAL RESULTS

Joe Biden will become the 46th US president, CNN projects.

CNN projects that Pennsylvania's 20 electoral votes will belong to Joe Biden above the 270 needed to become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orn in Scranton, the former vice president and longtime Delaware senator defeated Donald Trump, the first president to lose a reelection bid since George H.W. Bush in 1992. [Follow the coverage](#)

**279** BIDEN

50.8% 77,444,785

**217** TRUMP

47.4% 72,293,897

What is this?

CNN Projection

Jump to: [Ballot-cast States](#) | [All States](#)

#### Tracking the vote count

##### Pennsylvania

Vote share over time in Pa.

Vote margin over time in Pa.

##### Georgia

Vote share over time in Ga.

Vote margin over time in Ga.

23

## 대선 이후 미국

- 2달 남은 트럼프: 12월14일선거인단투표, 1월3일 상하 의회선거, 1월6일 상하의회 대통령당선 확정, 1월20일 취임식 (1월5일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
- 코로나 위기 악화: 천만 확진, 24만 사망
- 경제위기와 실업난
- 사회분열극복: 뿌리깊은 인종주의, 음모론과 선거불복 <https://www.youtube.com/watch?v=RP0A9EOCVBO>
- 기후위기와 다자외교, 자유주의 세계질서 복구?
- 미국의 지도력 회복?: "POWER OF INSPIRATION AND POWER OF INTIMIDATION"

#### WEAKEST HOUSE COALITIONS SINCE 1960

Change in President's Party Share of House Seats at First Election

ELECTORATES SEEKING MAJOR CHANGE SHOW IT DOWNBALLOT

Year	Party	Change	Seats
2008	OBAMA	+7.27%	+8 -21
1980	REAGAN	+9.74%	+12 -34
1928	FORD	+17.8%	+11 -97
1920	HARDING	+26.2%	+10 -63
1960	LINCOLN	+10.13%	+2 (of 56)
2020	BIDEN	+3.05%	+1* -11*

\*2020 election results are preliminary.

## The New York Times

Election Officials Nationwide Find No Fraud

Statements Amount to Forceful Rebuke of Trump's False Claims

Fighting Election Results, Trump Employs a New Weapon: The Government

Key Justices Signal Support for Affordable Care Act

U.S. Hospitalizations for Covid-19 Reach a Record High

Opinion: The Republican Party Is Attacking Democracy

## 2020 미 대선과 세계

-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선거인단제도의 결함 (2016 트럼프 306 vs 2020 바이든 306) 그러나 50개 주 단위 민주적 절차의 공고성, 트럼프의 선거불복과 소송이 먹히지 않음
- **민주주의의 위기**: 7천2백만이 넘는 미국의 절반, 특히 백인 다수(57퍼센트)와 히스패닉, 흑인 남성 주류가 여전히 트럼프 지지(트럼프즘), 공화당의 견제
- **미국주도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위기**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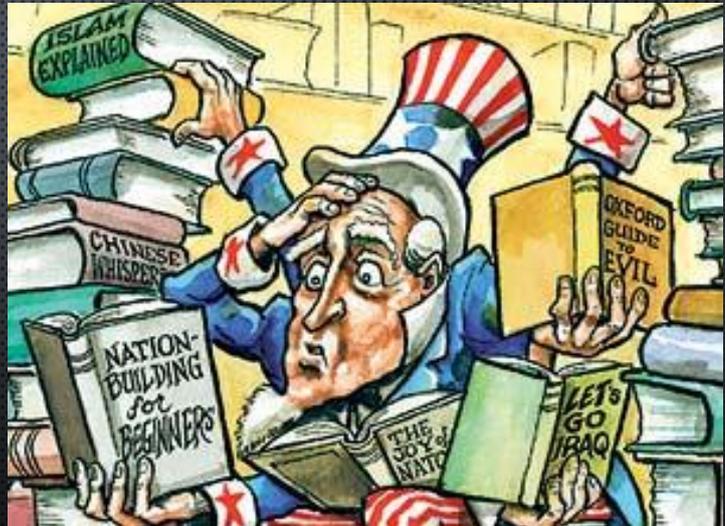
## 이상주의 패권의 딜레마: 자비한 패권?

- 자유무역, 자유 민주주의 확산, 인권신장, 법치, 세계평화와 안정
- “WHAT IS HISTORICALLY UNIQUE ABOUT AMERICAN LEADERSHIP IS NOT ITS POWER BUT ITS ULTIMATELY SELF-DENYING PURPOSE: THE MORE THAT AMERICA SUCCEEDS IN SPREADING ITS INTERESTS AND VALUES—IN POLITICS, SECURITY OR COMMERCE—THE LESS RELATIVE POWER IT WILL COMMAND.” *THE ECONOMIST (2002)*



## 미국 외교 정책의 딜레마

- 미국외교정책의 고민
- 고립주의 vs 세계주의
- 현실주의 vs 이상주의
- 일방주의 vs 다자주의
- 보호무역 vs 자유무역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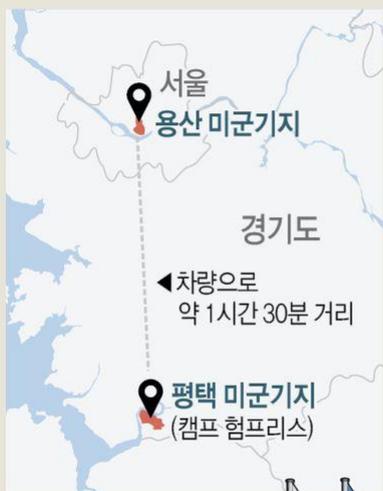
## 미국과 한반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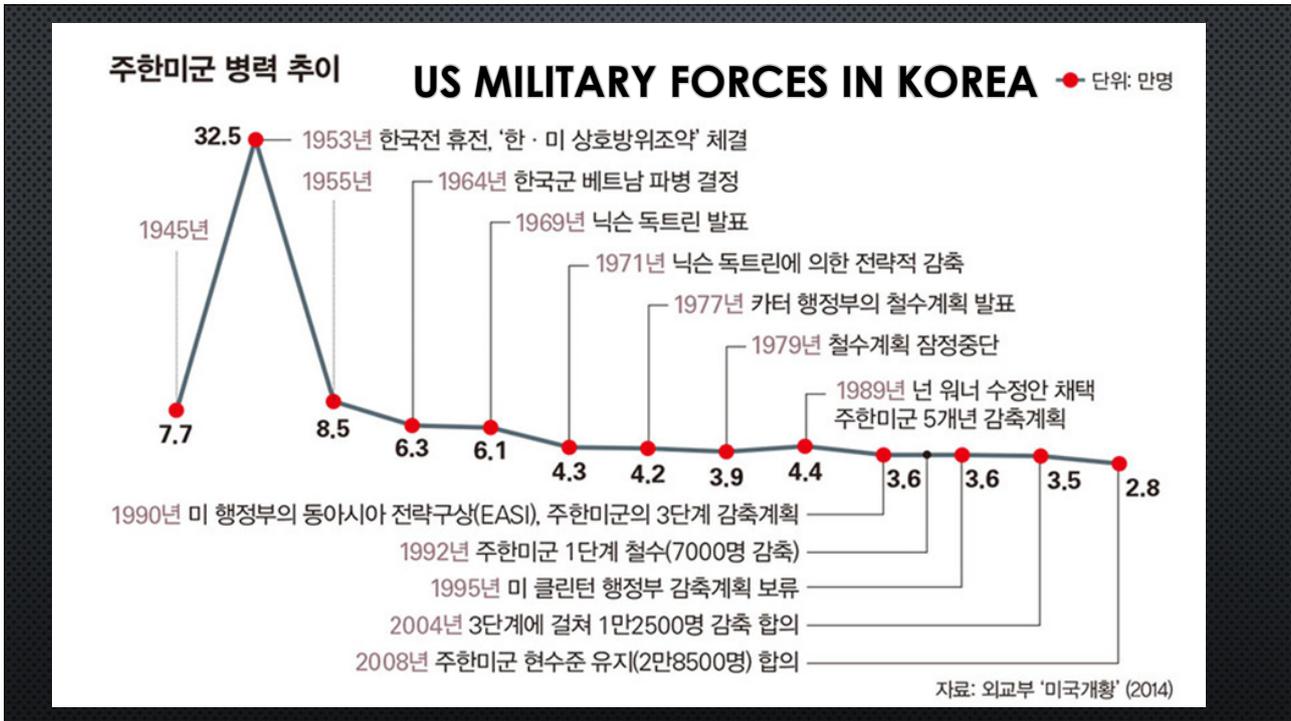
## 한미동맹변환: 전작권전환

### 전작권 전환 연계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 일정



2017년 7월	미 8군사령부, 평택으로 이전
2018년 6월	주한미군사령부, 평택 신청사에 입주
2019년	기본운용능력 (IOC) 검증
2019년 말	용산 미군기지 모든 서비스 업무 종료, 연합사 본부와 드래곤힐 호텔만 남음
2020년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
2020년 말	연합사 작전센터 (Operation Center) 구축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 연합사 작전센터 사용 예정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FMC) 검증
2021년 말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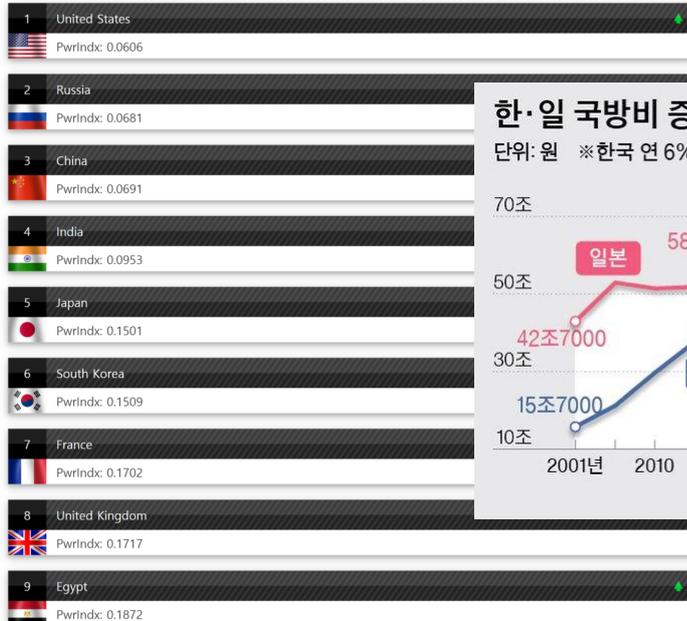




## GLOBAL FIRE POWER 2019



2020



### 한·일 국방비 증가 추이

단위: 원 ※한국 연 6%, 일본 1.3% 증가(최근 5년 기준) 적용





## 바이든과 북한

- 보다 신중하고 원칙적인 입장: 북핵 협상 리뷰
- 트럼프 식의 정상외교 회의적: 북한에게 어려운 상대
- 결국은 외교적 해법 시도
  - 산적한 국내 현안: 경제, 코로나, 정치/사회 갈등
  - 더 시급한 외교현안: 미중, 미러, 이란, 유럽 등등
  - 아시아의 다른 현안: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인도-중국



**North Korea's Kim Jong-un Is Eager To Engage, Is Joe Biden?**

Biden has an opportunity ahead of him: he can make history if he takes advantage of Trump's legacy of actively engaging the two Koreas who are eager to make a deal for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Seung-ho Sheen



**In North Korea, Joe Biden Will Seek Change, Not Photo Ops**

Biden, an experienced foreign policy hand, is likely to use a broader range of diplomatic efforts to pressure North Korea.

by Robert King

- *"WITH NORTH KOREA, I WILL EMPOWER OUR NEGOTIATORS AND JUMP-START A SUSTAINED, COORDINATED CAMPAIGN WITH OUR ALLIES AND OTHERS, INCLUDING CHINA, TO ADVANCE OUR SHARED OBJECTIVE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 FOREIGN AFFAIRS (MAR/APR 2020) 41



**MICHAEL E. O'HANLON**  
SENIOR FELLOW, FOREIGN POLICY

September 1, 2020 | Topics: Security | Region: Asia | Blog Brand: Korea Watch | Tags: North Korea, South Korea, Donald Trump, Joe Biden

### What Donald Trump Should Have Done With North Korea—and What the Next President Should Do

From the author: There is a way ahead. Rather than pursue complete elimination of all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aim for a more modest trade as at least an interim step. It would require North Korea to verifiably dismantle all capabilities it possesses to make more bombs in exchange for a partial lifting of the sanctions which have driven North Korea's economy into the tank.

by Michael O'Hanlon

### 바이든 외교고문 "바이든은 오바마야냐..김정은 만날 의향도"

홍고시안 | 2020-10-11 0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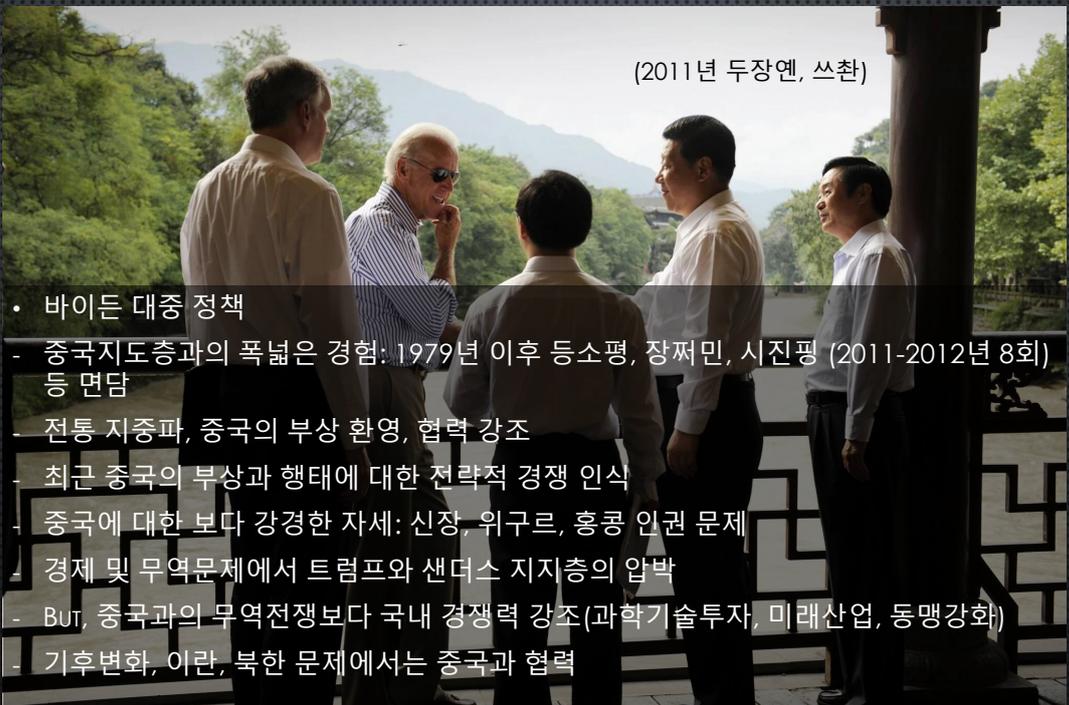
백내리 기자

켈프 핵심장모 첫 단독 인터뷰...전략적 인내' 총어 선 그으며 "상할 뻔했다" 실무협상 선행 강조하며 비핵화 전략 전체로 북미정상회담 키드도 배제 안 해 "재제, 목적 아닌 외교전략 일환...한중일과 협의에 대북외교협근 최선책 모색" "대북인도지원 지지·이산상봉 한국과 협력"...남북 경제협력엔 "매단 잡겠다"



바이든 백내리 외교고문 브라이언 매카인 (의) 국방부 프세까지 담지

(워싱턴=연합뉴스) 백내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켈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카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대선 승리시 북한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1년 두장엔, 쓰촨)

- 바이든 대중 정책
- 중국지도층과의 폭넓은 경험: 1979년 이후 등소평, 장쩌민, 시진핑 (2011-2012년 8회) 등 면담
- 전통 지중파, 중국의 부상 환영, 협력 강조
- 최근 중국의 부상과 행태에 대한 전략적 경쟁 인식
- 중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자세: 신장, 위구르, 홍콩 인권 문제
- 경제 및 무역문제에서 트럼프와 샌더스 지지층의 압박
- But, 중국과의 무역전쟁보다 국내 경쟁력 강조(과학기술투자, 미래산업, 동맹강화)
- 기후변화, 이란,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



바이든의 클린에너지 공약

향후 10년간 \$1.7 조 달러에서 4년간 \$2 조 달러로 기후변화 대응 예산 대폭 상향(교통, 전기, 건설 부분의 클린 에너지 관련 산업)

2020 민주당 정권 정책 중 기후 공약: 1) 2040년까지 "near-zero" 가스배출 2) 2030년경 신규 셰일가스 추출 금지, 석유와 디젤 차 판매 종료 3)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허가 불허 4) 2030년 경 전기생산, 건축, 교통 분야 100% 클린 재생산 에너지 사용 5)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금지 재개

44







